朝鮮日報
夕刊
三日(土)
本紙朝夕刊十面

三國商議期限附에
伊國首相反對回答
『아로이지』伊代表佛首相에게傳達
和協形勢依然惡化!

뭇솔리니首相
Benito Mussolini

【電通쥬네브二日發】英佛伊三國妥協方式에對하뭇솔리니伊首相의回答은 二日午後零時半伊太利代表部에 到達하얏슴으로아로이지伊代表는 即時 라발佛首相을 訪問하야 此를傳達하얏는데 뭇솔리니伊首相은 伊에紛爭의 全般的處理를圖할 英佛伊三國商議에期限을附한點에反對하야왓슴으로 英佛伊三國代表는 再次交涉을 開始하얏스나 英伊間意見疎隔이 甚하야 드듸여 交涉은 難關에逢着하고 二日午後 開會豫定이엿든 聯盟理事會는 無期延期가되어 形勢는依然惡化하엿다

英伊間意見疎隔으로
聯盟特別理事會遂無期延期

伊國又復東阿에
四個師團動員計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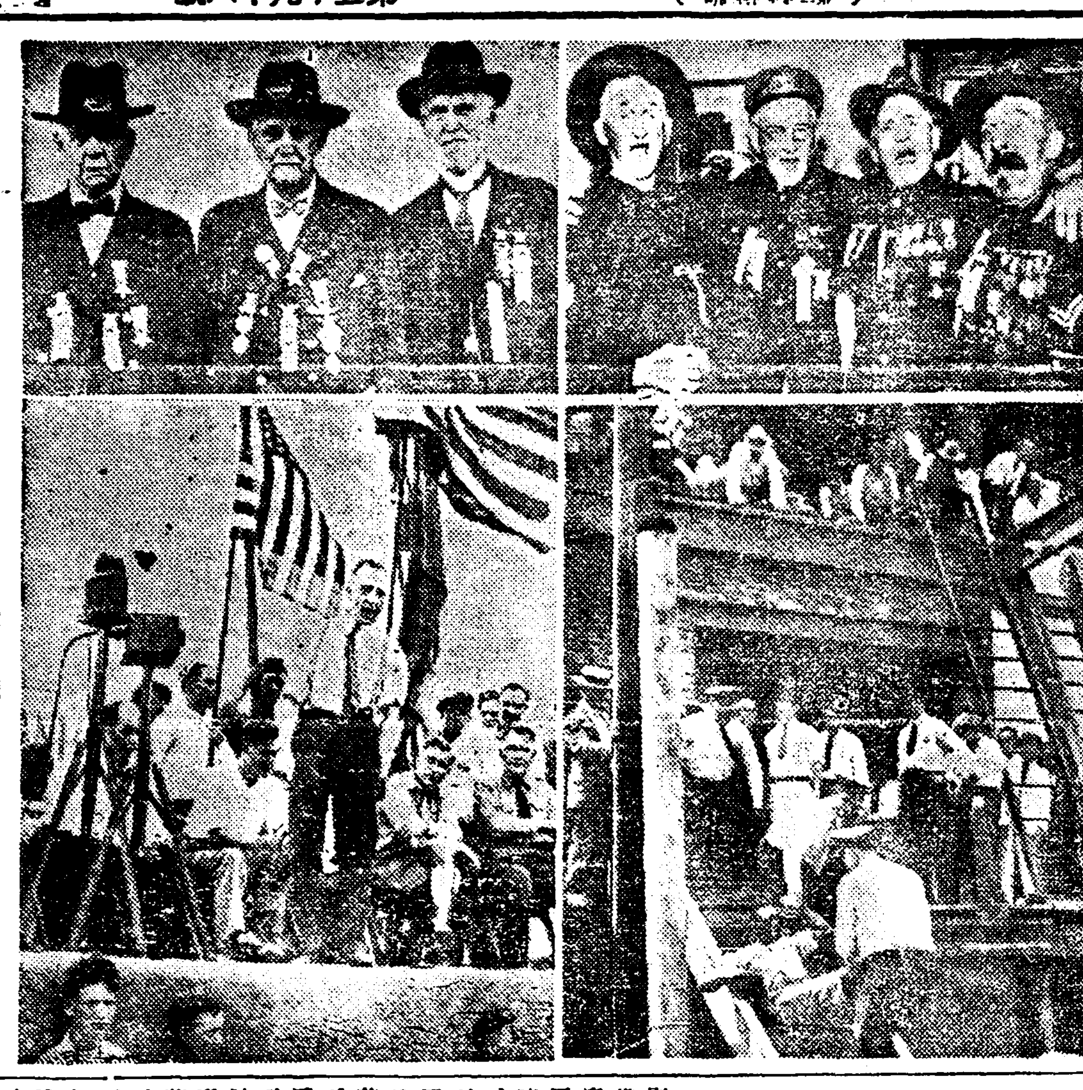
【電通羅馬二日發】探聞한바에依하면 伊太利政府는 三日午前公式코뮤니케를 發表하야 東阿遠征을爲하야 다시 四個師團의 動員計畫을 中外에 發表하기로되엿다 이今般動員될것은 陸軍二個師團 黑샤쓰二個師團이다 그리고 右코뮤니케에잇서 新派遣計畫이 發表될터인데 그內容에 對하야도 窺知할수업다

對에武器禁輸
瑞西는撤廢意向

【電通아디스아베바二日發】昨日에디오피아와 通商條約을 締結하고 武器輸入에 對하야 同情的態度를 示한瑞西政府는『目下開催中인 聯盟理事會가 終了하기까지 自由行動을 留保한다』는旨를 에디오피아政府에 通告한것이라고 觀測된다 右는 理事會의 終了를 기다려 에디오피아에對한 武器禁輸를 撤廢할것을說明하는것이라고 推察된다

今井田總監首相訪問

【東京電話聯合】今井田朝鮮政務總監은 三日午前九時十分 官邸에岡田首相을 訪問하고 渡東人事를한後 朝鮮統治狀況에關하야 詳細報告하고同九時半辭去하엿다


米老兵의 뽀너스캠페인
恩給大減削에 反對하는 米國老將校들의 데모가 最近華盛頓에서 열려 一時騷然한光景을 이르엇다 寫眞上은 데모에參加한 米西戰爭參加將兵들、下左는 아지演說光景 下右는 警官의 示威運動制止하는 一場面

聯盟理事會危機僅免

【電通쥬네브三日發】伊에紛爭特別理事會의 和協方式案은 英、佛、伊三國代表가 調印한 假草案에 二日 뭇솔리니 伊首相이反對를 通告하여왓기 때문에 一時 非常한 危機에 陷하엿섯스나 二日午後의 三國代表會談에서 草案에 再三修正을 加하야羅馬政府의 再考를 求한바 午後十時지나 뭇솔리니 首相이 右草案에 若干의 新修正을 附加하야 最終案을 送付하여왓슴으로 三國代表는 라발首相의 아파트에 再次會合하야 此를檢討한 結果 右最終案에 原則的同意를 與하기로 意見一致되고 技葉에 亘한 一、二의 細目을 除하고는 大綱에잇서서는 玆에 伊에紛爭對策에 對하여 英、佛、伊三國間에 全面的으로 意見一致되게되엿다 妥協方式의 要旨는 理事會의 決議案에는 紛爭當事國의 再開期에 關한 日時는 남것스나 實質的 紛爭解決條約은 이를 一九〇六年의 條約調印國인 英、佛、伊三國會議로 讓步하야 聯盟의 紛爭介入權을 形式上 承認하면서 和協細目은 三國間의 自由裁量에 맥기려하는것이다 그리고 英、佛代表는 深夜에디오피아代表를 招致하고 和協案을 內示하야 同意를 求하엿스나 에디오피아政府의 回答은 三日午前中에 到着되리라고 豫期되는바 其內容은 多少 不服을 含하리라고 信하는側도 잇스나 理事會의 裁定에는 服從한다는데서 右를 承認하리라고 像想되다 그리하야 難產의 特別理事會 決議案은 三日 採擇될 希望이 보이게되여 聯盟은 再次 事實上 傍觀에 還元하게되엿다

伊若干의修正附加
三國意見再一致
聯盟介入權을形式上으로認定
和協細目은自由로裁量

新草案成立經緯

【쥬네브三日發聯合】伊에 紛爭에關하야 理事會에 出席中인英、佛、伊三國代表가 一日夜까지作成한 新決議草案에 對한뭇솔리니首相의 回答은 二日午前 쥬네브

에國서列車顚覆
伊人二名死亡
伊에關係緊迫新材料

【아디스아베바三日發聯合】擧國一致의 戰爭熱에 불붓고 잇는 三日 아디스아베바線 進行中인 貨物列車가 脫線、顚覆된것은 時節이 時節인만큼 커다란 衝動을 아르키엇다 被害程度는 아직 明確치안호나 死亡者中에는 二人의 伊太利人이 석기여 잇슴으로 事態는 자못 重大視 되여잇다 政府는 直時 軍隊를 急派하야 鐵道沿線과 橋梁警備에 當하고잇는데 脫線事件은 計畫的으로된것이지 不可抗力에 依한 것인지 今日까지 아직 判明되지 안호나 一部에서는 從業員의 怠業에서 생긴것이 안인가 하는 說도 有力하다

國體明徵의聲明書
全閣僚意見一致
明確히天皇機關說排擊의意思表明
三日午後一時遂發表

【電通東京電話】國體明徵에 關한 政府의 聲明書에 對하야 案文起草中인 白根內閣書記官長은 二日夕刻 陸、海軍兩當局과의 最後的協議를 行하고 完全히 意見一致되엿슴으로 身病療養中인 床次遞相에게는 電話로 諒解를 求하고 다시 葉山에서 靜養中인 高橋藏相의 諒解도 어덧슴으로 案文의最後的調整을 行하야 三日夕刻에 直時 發表하기로되엿다 그리고聲明書가 社會一般에 與할 影響이 重大한데 鑑하야 政府도 愼重을 期하야 그發表에 當하야 所謂 總理談의 形式에 依치안코 政府聲明의 形式을取할려이며 그內容에對하여는 大日本帝國憲法上諭中의『國家統治의 大權은朕이 此를祖宗에 承하야 此를子孫에게 傳하는바이다』及憲法第一條의 大日本帝國은 萬世一系의 天皇이 此를 統治함이라는 字句를適當히 組入하야

一、國體의尊嚴無比한데 關하여는何人이나 疑心을가지안는다
一、그런데 憲法學說中에는 機關說等의 所謂不穩한 字句가 잇는것은 政府가 極히遺憾으로 녁이는바이며 政府는 此等學說이 世上에 橫行하는데 反對하다
一、政府는 今後에도 一層國體의 明徵을 期하야 善處할것이다

라는 等을 提唱하야 明確히 機關說排擊의 意思를 表明하엿다

高橋北平駐在武官
閻氏와重大會見
最後的으로意見打診

【電通北平三日發】高橋北平駐在武官은 一日早부터 閻錫山氏와 會見하고 北中新情勢에 對한 閻氏의 認識不足을 是正하는同時에 日本은 北中에 對하야 何等野心이업다는 所以를 反復說明하야 그理解를 求할 意向이든바 二日 天津에赴하야 駐屯軍參謀長 酒井大佐와 協議하고 即時 飛行機로保定에到着하야 河北省政府主席商震氏와 北中諸問題에對하야 重要意見을 交換하고 一泊後 三日朝 飛行機로 太原에 向할 豫定이든바 三日은 朝來의 豪雨로 飛行不可能하게되여 四日로延期하고 同日中에 閻氏와 會見할터인데 同武官은 三日夜까지에 大城戶前滿洲班長、石井天津軍參謀、田中關東軍調查班長、都中太原駐在武官等이行한 閻氏와의 會見結果를 綜合하야 今回에는 認識是正의 最後的決意로써 會見하려하는바 北中今後의 政治的進路와 日中經濟提携具體化에 對하야 重大性을 띄는것이라하야 注目되여잇다

選擧取締協議次
警察部長會議招集

【東京電話聯合】今秋의 地方議會選擧에 際하야 內務省은 選擧의 公平을 期하기爲하야 徹底的取締를 斷行하려고 着着準備를 進行하고잇든바 또 司法當局과 協議한다음 八月中旬을 期하야 一日 又는 二日間 警察部長會議를 召集하야 이主旨를 徹底케하기로 되엿는데 選擧取締의 目的으로 警察部長會議를 招集하는것은 아즉 그前例가업고 今回가 처음이라 各方面에서 多大한注目을 끌고잇다 會議는 內務省所管뿐아니라 司法省所管의 講演에 一日를 提供할方針이다

顧駐佛中國大使
近日上海出發

【上海二日發聯合】앗서 쥬네브聯盟에서 松岡洋右氏와 大論戰을한 駐佛大使 顧維鈞博士는 目下 上海에잇는데 近日中에 上海出發 쥬네브로 向할豫定이다

話題解說
滿鐵改組問題

◇

二日 滿鐵總裁의 更迭이 發令되여 松岡洋右氏가 新任總裁에 就任케되엿는데 이에따라 얼마동안 자최를 감추엇든 滿鐵改組問題가 再燃되엿다 世人이 周知하는바와가티 滿鐵은 日本의 對滿經濟侵略의 根幹이되는것으로 日露戰爭後 長春以南 旅順間의 鐵道及 其付屬事業을 露西亞로부터 讓受하야 一九〇七年 四月에 創立된 半官半民의株式會社로 當初에는 鐵道及 撫順의 二事業을 經營하엿섯스나 其後 政府의 命令을바다 海運 港灣 製鐵 瓦斯 其他의 事業을 이르켜 現在에 잇서서는 資本金八億圓을 擁한 一大會社라기보다 完然한 一地方政權인 觀을 보이고잇다

◇

그러나 滿洲國成立以後 客觀的諸情勢가 變하게됨에따라 諸機關의統制上 根本改革을 必要하게되여 再昨年에 關東軍特務部가 滿鐵改組案을 作成하야 參謀沼田中佐가 該案을 東京에 携行하엿든바 마침내 滿鐵內部와 特히 拓務省의 反對를맛나게되엿든것이다 最初案의 內容은 一、滿鐵에 全滿洲產業의 統制權을 掌握식힐것 二、… 三、現在鐵道의 直系會社는 獨立식혀 滿鐵의 監督下에 둘것

◇

這間에 關東軍은 前記案과 大同小異한 最後案을 다시作成하야 十二月十三日 東京에 … 部에 此를提示하엿든바 拓務省에서는『社會不安을 招來하는 改革은 不可하다』는 反對聲明을 發表케되고 大藏省에서는 時機尙早論을 主張하게되고 齋藤首相은『軍司令官의 監督은 越權』이라는 意見을 表示케되여 各省間의 專門的檢討에 入하기前에 挫折되엿스나 軍當局에서는 그後繼續하야 具體案作成을 考究하고잇슴으로 早晩間 어떠한 形態로서나 改組가 實現될것만은 否定할수업슬것이다

聲明全文

【東京電話聯合】天皇機關說排擊國體明徵에 關한 政府聲明書는 紆餘曲折을 經過하야 겨우 手續을 完了하게되엿슴으로 政府는 三日 左와如히 天皇機關說이 國體의 本義에 背馳된다는 것을明白히한 聲明書를 午後一時十分에發表하엿다

聲明書

恭惟컨대 我國體는 天孫降臨에際하야 下賜하압신 御神勅에 依하야 昭示되는바이며 萬世一系의 天皇께서 國을 統治하시는바 寶祚의 隆은 天地와 함께無窮하다 그러면 憲法發布의 御上諭에『國家統治의 大權은 朕이 此를 祖宗에 承하야 此를 子孫에게 傳하는바이다』라고 宣하압시고 憲法第一條에『大日本帝國은 萬世一系의 天皇이 此를 統治함』이라고 明示하시엿다 即大日本帝國統治의 大權은 儼然히 天皇에게 잇는것이 明確하다 萬若 그統治權이 天皇에게 잇지안코 天皇은 此를行使하기爲한 機關이라고 하는것은 이것은 全然 萬邦無比인 我國體의 本義에 逆行되는것이다 近時 憲法學說을 中心으로 國體의 本義에 關聯하야 異常한 論議가 잇게된것은 實로 遺憾不堪이다 政府는 마층내 國體明徵에 注力하야 그精華發揚을 期하며 따라 玆에 그眞意의 所在를 述하야 널리 各方面의協力을 希望한다

聲明發表의날
美濃部邸
蟬聲만이閑寂

【東京電話聯合】政府의國體明徵에關한 聲明書發表의날 三日問題의 人인小石川區竹早町 二四의 美濃部博士邸는 一層閑寂하야 사람조차업고 臨時派守軍이쓰는 天幕도 어러버리고 美濃部博士는 집에업다 오즉附近의兒童二三名이 숨기잡기를 하고잇다 博士는七月上旬부터 某地에 夫人과함께 避暑하야 同地에서 讀書三昧로 海濱에도 안나가고 잇는데 機關說排擊聲明의 이날博士의 感慨無量한바 잇슬것이다 下人의 말은 去年까지는 四日間에 一日은 歸來하섯는데 今日政府의 聲明書가 나는날이구려… 酷暑下에 덥은 美濃部邸에 맴의 소리만이 놉다

陸相、松岡總裁에
根本方針을指示
改組斷行이先決條件

【東京電話聯合】林陸相은 十二日頃 北海道 方面에 旅行하기前에 對滿事務局總裁로 松岡總裁를 招致하고 對滿政策遂行에 關하야 重要指示를 行할터인데 그主旨는 大體左와 如한것이라고 觀測된다

一、在滿機構改革以來 滿洲에잇서 日本政治機構는 軍司令官全權大使의 二位一體의 一元으로 統制되여 經濟產業建設에 全面的躍進을 遂할 段階에 入하엿다
一、滿鐵은 全滿洲의 經濟產業建設에 重要한 役割을 遂行하고잇스며 그 首腦者로 全面的指揮를 行할 總裁는 이重大한 役割과 使命과를 自覺하고 國家的見地에서 그經營을 行할것이다
一、滿洲의 產業建設을 全面的으로 實行하기 爲하여는 中央部와 駐外當局에서 硏究하고잇는 滿鐵을 滿洲事件後의 新事態에 適應할수잇게 改組하는것이 先決條件이라고 思惟함으로 新總裁로서는 이點에關하야 充分硏究를 遂하야 現地機關과 密接한 連繫下에國策遂行 經濟建設의 大本을決定할것을 期할것이다

八面鋒

◇ 一翔의 事實로 全米國에는 곳이라도 갈수잇게하자는 車貨均一案이 잇다.

◇ 道路上으로 通行함은 貧富의別이 업시 누구나 自由로하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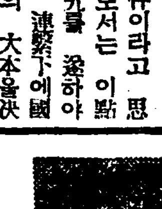
◇ 鐵道도 道路의 一種으로본다하면 누구나 탈수잇서야 맛당한일.

◇ 軌道의 敷設、車輛의 消耗、人件의 費用等 實費에 損害되지안는 程度라면 最低料金制를 採用할도 當然.

◇ 이밧게 電氣、水道等 民衆生活에 不可缺한者는 모도다 最低料金制로 國家가 責任을지고 供給함이 엇더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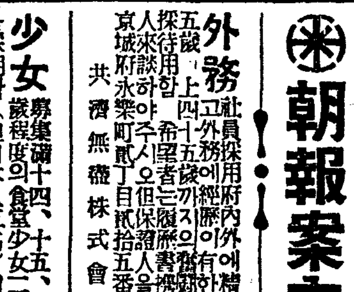
グレート印
自轉車用
스프링사도루

輕快 堅牢
全國自轉車店에잇슴
神戶 山本サドル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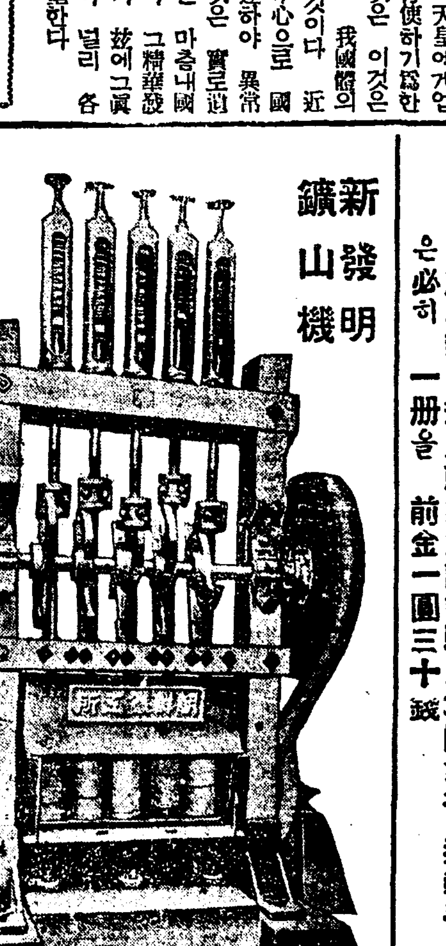

巡查看守(講義錄)
巡查看守志願者는本會講義錄卒業에依하야合格保證 特典으로鮮人巡查試驗問題附 卑學三冊無料進呈함(但入會者에限함)
京城府永樂町二丁目二番地
朝鮮警務學會
電本三〇三〇番
(規則書郵送)

年賦定期貸付
普通銀行業務
日本銀行代理店
日本勸業銀行代理店
朝鮮貯蓄銀行代理店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百四十番地
株式會社 朝鮮殖產銀行
頭取 有賀光豐
資本金參千萬圓
全鮮各地에支店派出所六十個所及內地大阪에支店잇슴

朝報案內
外務社員採用 府內外에精通하고外務에經驗이잇는 四十五歲까지의 希望者는 保證人을帶同하고 本人來談하시오
京城府永樂町二丁目 共濟無盡株式會社
少女募集 滿十四、十五、十六歲程度의食堂少女二十名을採用함(但日本人五名)
鍾路 韓靑ビル二階 韓靑食堂

開業十五週年紀念投賣特賣 ○各學校當局者大好評
寢臺專門

型錄進呈
自七月十五日至九月末日
平安工業社
平壤府 … 振替京城二三一一 電話一八八五五
新案生徒用机兼用椅子
割引券謹呈
수어지板鐵脚製이지만 從來木脚式보다安價

一組 ¥4.20 普校一二年用
一組 ¥4.70 同 三四年用
一組 ¥5.30 同 五六學年用
一組 ¥5.90 中等學校

發條搗鑛機
新發明 鑛山機
(型錄進呈)

京城府中林洞二三九番地
朝鮮鐵工所
京城グリップス製作所
電話本局(二)四四三八 四四六三

豊富한教師高名한教授를聘한本校는每年六百餘名의勇士를養成學資僅四十八圓에免許를得할수잇고鮮滿各地에就職이容易한學校는本校에限、就職後는月收入五十四以上。絕對安全코責任잇는學校로斯界서公認
隨時男女學生募集
朝鮮第一自動車學校 (太平通二丁目)
學則請求는二錢切手要、電本四〇六八、京城府廳前
自動車新法規及就業免許試驗用地圖發行·運轉手·助手·學生은必히 一冊을 前金一圓三十錢

クボタの ディーゼル機関
石油發動機
伊佛英米獨日特許アークロ式

農林省認定品
商工省指定優良國產品
(文註迎歡)

合名會社 杉山商店京城支店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二五
電話本局長 683番 4784番
本店 大阪市西區立賣堀南通町二丁目 電話新町 901·902·303·904·3137
支店 東京·名古屋·神戶·大連·奉天·臺北 札幌·八幡

優美館
八月四日부터三日間
每日三回 正午十二時三時半八時
料金 大衆階上大人三十錢 小人二十錢 階下大人二十錢 小人十錢
◇골든비아映畫會社特作全發聲 本版
人情活劇 戰時特派員 뿔스룽 監督
◇松竹키네마社特作全發聲 짜크 홀드 크랄프 리뿌슨 主演
マダムと女房 五所平之助 監督 田中絹代 齋藤達雄 小林十九三
豫告 크레오파도라
朝鮮名畫 銀河에흐르는情熱(一名愁像) 金剛키네마社作品
原作 李明雨 脚色監督 安鍾和 撮影 李明雨
主演 李源鎔 李慶善 朴齊行 全舜子 柳新芳 申一仙
仁寺洞 電光三六
朝鮮劇場
八月一日브터納凉大公開 晝夜三回興行
料金 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
유니버-살超特作全發聲大活劇 레이디 이라 1氏大作品
海洋의 覺 全二十四卷中 前半十二卷上映 連續 보드 달마지氏主演
루-시 리 쿨·트·테리 大都映畫社超特作時代劇 放浪旗本仁義 阿部九洲男 木下双葉 主演
大都映畫社特作現代劇 吉村操監督作品! 女房大進軍 勝間林太郞、伴淳三郞、千代田綾子 主演
貫鐵洞 電光 三九

二萬餘罹災民을 各收容所에서 逐出

住居地는 廢墟가 되고 말어 堤防우에 彷徨雜沓

【新義州支局電話】 신의주의 제일、제이보통학교를 비롯하야 각처에 수용되어잇는 피난민은 그수가 이만여명에 달하는데 각수용소에서는 압흐로는 더수용소는 빌릴수가 업다고 상일부터는 전부쫏차내어기때문에 그들은 도라가자니 주택 이천여호가 물에 휩쓸려 내려가 빈터만 남은지라 할수업시 제방우로 몰려드러 움막을 치느라고 대혼잡을 일우고 잇다 그런데 이들리재민은 대부분이 빈민들이라 류실된주택을 시급히 복구할수도 업는터이어서 아프로 이만여명을 수용할 주택문제가 큰 난관으로 되어잇다고한다

救濟會晝夜活動 義捐金續續遝至

壽山、鷄林、純興醫院과合力 本社支局에서罹災民無料診察

【新義州支局電話】 본보신의주지국에서는수재후에 리재민들의밥병된사람이 만키때문에 수산실비의원(壽山實費醫院) 계림치과의원(鷄林齒科醫院) 순흥치과의원(純興齒科醫院)세곳을 합력하야 리재민들에게 무료진찰과 시약을 하고잇는중이다。일방 구제회와도 협력을하야 회원이 총동원이되어 호별방문을 하면서 수해구제 의연금 모집중인데이미모집된 금액은 다음과 갓다

▲一百圓式 新延株式會社 鴨江土地改良會社 國境商事會社 ▲五十圓 國大組合 ▲三十圓式 國境通運會社 新義州仲介組合 趙尙鈺 白世益 大昌洋品店 李熙邁 高秉哲 安秉緖 ▲二十圓式 新仲產業組合 新義州產業組合 黃明坤 金井商會 金承鉉 ▲十圓式 新安堂 日鮮商會 吳鈗默 全國鉉 金宗滉

本社에서白米十俵 救濟會에寄托

新義州罹災民에게配給

포악한 수재로 인하야 주택과 식량을 일시에 일허바리고 로천의 제방에서 주리고잇는 신의주의 이만여명 리재민에 대하여서는 발서 각방면으로부터 금품등 동정이 답지하야 동포애의 아름다운 발로를 보게되엇거니와 본사에서도 그들을위하야 백미열가마니를 동지의 본보지국으로 보내어 방금렬렬히활동중인 신의주 수재구제회의 손을거치어 각각 리재민들에게 나누어주게되엇다

鴨江上流地方도 家屋田畓被害頗多

平北全道內의各郡別水害統計詳報 農作物도大減收豫想

【新義州支局發】 금번 압록강(鴨綠江)대홍수로인한 평안북도 관하일대의 수해는 일일정오까지 판명된것이 다음과갓다

▲全道浸水家屋 七、〇一四戶
流失倒壞家屋 三、五七〇戶
▲新義州府內床上浸水 七二戶
府外 同 三、七五〇戶
流失倒壞 三、四〇〇戶
▲威化面浸水家屋 一、六八二戶
流失倒壞 一七戶
▲古城面水浸家屋 一六九戶
流失倒壞 一戶
▲柳草面浸水家屋 二一四戶
▲龍岩浦田浸水 三六〇町步
損害 七〇、〇〇〇圓
▲定州浸水家屋 三三〇戶
流失家屋 三戶
畓浸水 七四町步
橋梁破壞 四四個所
道路破壞 一五個所
▲慈城郡 浸水家屋 一二九戶
流失同 七〇戶
田流失 三七町步
畓同 三町步
道路流失 七八個所
死傷 一名
負傷 三名
▲渭原 浸水家屋 一二戶
流失同 一〇戶
田畓失 二〇町步
橋梁破壞 八個所
木材流失 二〇〇貫
▲碧潼 浸水家屋 一五戶
流失同 五二戶
畓流失 七〇町步
田流失 二四五町步
鐵物同 一六、九四〇圓
▲前川 橋梁破損 一、〇〇〇圓
木材 同 四〇圓
▲水島 浸水家屋 三三戶
田畓浸水 二九町步
道路流失 八六個所
▲東興 浸水家屋 四戶
道路流失 三一個所
鐵道線流失 一二〇米
橋梁 五個所
▲江界 道路 一四個所
田畓 六町九三反
▲博川 田畓 二〇〇町步
道路 四〇個
▲[illegible]山 浸水家屋 五〇〇戶
流失倒壞 一〇戶
橋梁 二個所
田畓 一、五五〇町步
▲楚山 浸水家屋 九五戶
田畓 六〇〇町步
家畜 四〇頭
穀物流失 七五俵
船舶流失 九〇〇石(三萬圓)
平北農作物浸水 新義州府外光田兩水利組合 七百五十町步全滅 三橋川水組 五町步 忠流水組 三〇〇町步(五割減) 楊光、楊市兩水組各八〇町步 三進水組 三〇町步

江原被害想像以上 人命만六十餘名

農物被害도十數萬圓

【[illegible]】이일 경무국에 도착된보고에 의하면 강원도경찰부에서는 전번에 수해리재자중 죽은사람에게 대하여는 조위금(弔慰金)을 나누어주엇는데 그타의리재자로서 특히 구제할필요가잇는이에대하여는 다음과가튼 표준에의하야 우선도비(道費)구제비로써 응급구제를하고저 방금리재자의실정을 각각조사중이라한다

罹災者救濟標準

一、小屋掛費、家屋流失及全壞一戶當十五圓以內 家屋半壞一戶當八圓以內

二、負傷者救濟、醫療費要하는程度의負傷者 一人當十圓以內

水害狀況(八月二日現在)

一、住民被害 死亡三〇名 負傷三〇名 行衛不明六名 計六六名

二、家屋被害 流失五六戶 全壞五九戶 半壞七六戶 床上浸水一三三五戶 床下浸水三〇一戶

三、家畜被害、馬死一、牛死四、豚死一八、其他一三

四、田畓其他被害 田畓流失及埋沒一萬一千百二十四反 田畓浸水一萬七千百八十五反 農作物損害豫想額十三萬七千九百四圓

五、道路橋梁被害 道路流失及決壞二百一個所 六千四百二十八米 橋梁決壞及流失十八個所

六、鐵道損壞二個所六百米

七、堤防被害 崩壞及流失六十個所二千二百十八米

八、山崩其他崩壞百八十六個所千八十二反步

九、其他被害 材木流失損害豫想一萬八千五百圓 其他被害豫想一千二百三十圓

四日間不通中 今曉京義線全通

二日午后三時半京城發노조미 午前一時石下通過

압록강(鴨綠江)의 범람으로 경의선(京義線)의 신의주、석하(石下)간의 철로가 류실되어래 철도당국에서는 복구공사에 전력을 다하고잇든바 작이일오후열시오십분 안동(安東)을 떠난 록호렬차는 현장에 이르러 기다려잇다가 상일오전한시 무사히 현장을 통과하얏다 이로써 사일간에궁한 국제렬차의 불통은 완전히 복구되고 이일오후 세시반 경성을 출발한 봉천행 특급 노조미도 통과북행하엿다

七個高普校에 將校를配置

軍事敎練을식히기爲하야 一日陸軍異動에發表

륙군에서는 작년팔월이래 조선의 고등보통학교에 현역장교를 배치하야 군사교련을 실시하기로하고 위선경성 제일 제이의량고등보통학교에 실시한바 잇섯는데 그뒤 총독부 학무국에서 배속장교증가를 신청중이든것이 지난번 륙군성의 흑전(黑田)중모과장이 조선에와서 실지를시찰한결과 필경배속장교의 증가를하기로되어 일일륙군 정기이동을 기회로 좌기 칠개처의고등보통학교에 새로히 현역장교를배치하기로되엇다

▲東萊高普 ▲大邱高普 ▲光州高普 ▲咸興高普 ▲鏡城高普 ▲春川高普 ▲平壤高普

外上에몰리워 少年이飮毒

이일 오후여섯시에 시내교남동(橋南洞) 팔십륙번지 포목행상 한정석(韓貞錫)(一九)은 자기집에서칼모틴을 먹고 자살을 도모하려다가 그집안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그부근령천의원(靈泉醫院)에 대려다가 치료중인데 생명은 구조되겟다하며 원인은 외상갑 일백오십원이 회수되지안흠을 심려한 끄테 그만 죽엄을도모한것이라한다

百貨店에窃盜黨

수일전부터 시내룡산서(龍山署)에서는 시내죽첨정(竹添町)이정목에 본적을두고 방황하든황경성(黃景成)(二〇)과 리천군(利川郡) 출생으로 역시정처업시배회하든김창수(金昌洙)(二〇)외 두명을 검거하야 엄중취조중이든바 그들은 근래 보기어려운우리만큼 계획적으로 절도행각을 하엿다는바 주로각백화점과 양품점등을 차저다니며 물건을사는체하고 양복、양말、시계등사치품만을 전문으로 전후삼십여차에수백원의상품을 절취하고단엿다

京城과平壤에 營林署를設置

寧遠署는廢止키로

총독부 림정과(林政課)에서는 명년도에 경성에 영림서(營林署)를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강원도강릉(江陵)영림서와경기도 산림과(山林課)에서 관할하든 국유림을 관리하게되엿다 하며 또현재 평남 령원(寧遠)에 잇는 영림서를 평양(平壤)에 이전하기로 결정하엿다는데 경성영림서는 초년도에는 서장이하 림정과 기사가겸임하고 직원도 경기도 산림과원의 일부와 강릉영림서 직원의일부를 전임식히어 충당하기로하는 관계상 경성영림서 신설과 령원영림서이전에관한 예산은 만치는안흘터이라한다

精神病者爲한 收容所新設

二十五萬圓豫算을要求 場所는京城으로

총독부위생과에서는 정신병환자의 퇴치책을 강구하게되야 명년에는 우선 경긔도에 수용소(收容所)를하나 설치하고저 이에관한예산이 십오만원을 재무국에 요구하엿다한다 현재 조선안에잇는 정신병환자는 총수이천오백삼십오명으로 매년증가하여가는 상태인바 정신병자를 수용하야 치료하는 병원으로는 대학병원 『세부란스』병원과 일이사립병원이 잇는 외에 아모것도 업는 터이다 그리고 작년말 현재의 정신병환자를 도별로보면 다음과갓다

京畿道三三一 忠北六六 忠南一四六 全北一五八 全南三〇九 慶北四〇三 慶南三九五 黃海一〇三 平南六七 平北一七四 江原九四 咸南一一〇 咸北九七

◇本社參觀 평양(平壤)、진남포(鎭南浦)、강서(江西)각지방 예원청년련합회대표 홍긔주(洪箕疇)씨외삼십삼인은 삼일오후한시반 본사참관。

運動競技

咸興軍大勝 對法專庭球戰

【咸興】 法專庭球遠征團과 全咸興軍과의對戰은 一日午後三時부터咸興東一銀行支店庭球『코-트』에서行한바 觀衆은無慮千名으로 空前의熱狂裡에 一大接戰을演出한끄테 法專軍 殘念敗하엿다。

第一라운드 【法專軍】 【全咸興軍】
○太完善·趙德烈 4…3 李裕生·朴俊基×
×朴永壽·砂金 1…4 金榮成·坂氏○
○李正來·趙成洛 4…3 鄭進林·韓鳳明×
×田興得·吳根 0…4 韓台植·劉在鎬○
第二라운드
○太完善·趙德烈 4…3 金榮成·坂井×
×李正來·趙成洛 1…4 韓台植·劉在鎬○
第三라운드
×李正來·李輔來 1…4 韓台植·劉在鎬○
×太完善·趙德烈 2…4 韓台植·劉在鎬○

國際學生競技에 伊太利軍不參加

【倫敦三十一日發聯合】 八月부터 第六回國際學生競技大會에 出場할 伊太利팀은 二百十名의出場選手가 大部分 軍務關係가잇다는 理由로서 今般大會에 參加不可能하다는 旨의 正式通告가三十一日 本部에 到着되엿다는바 伊太利팀은 選手를撤回하고 棄權의다음가는 處置를하고 잇섯다。

年年水魔의脅威밧는 麻田洞、六島住民

危險地帶에서救出하여야할 緊急對策이絕對必要

【新義州에서本社特派員 高鳳梧發信】 이번수해에가장 침수가옥이 만흔부락은 안동현구시가를 차즈니 여기는 대정십이년의 대홍수의 경험으로 축조되엿다는 강안의 제방이넘어 제방의 존재조차차저볼수업는 안동현 유사이래의 초고록적 수란이엿다 시내버럽의 원인을 드르면 이곳사하진(沙河鎭)역전을 흐르는 조고마한강의 제방이낫고 단면(斷面)이좁아서 이러한 참변을입엇다하야 금후로는 안동현의근본적방수 설비를 리재민들은부르짓고잇다 이곳에잇는 리재민들사이에는 점점히 회오의모양이 보이엿다 수해란 지진(地震)과도 달러 어느정도까지는 인공적(人工的)으로 방어할수잇다는것은 구시가가 그러케 처참한정형을 이루엇것만 만철부속지(附屬地)만은 제방관념을 기하엿슴으로 한방울의 침수조차 업섯다는것으로 증명할수잇섯다

◇

여기서 밤길을더듬어 강안동을 거처 압록강 상류연안의 위협을 전하는 위화도(威化島)를찾고저 강가로 나갓스나 때는이미 어둠의장막이 압록강을가리우매 무심히 강건너저편 위화도방면을 건너다보고 잇다가 강가에서 우연히 맨친고를 만나그동안의 정상을 드르니 저건너 북하동(北下洞) (위화도의일명)에는 사천오백명이 거주하고 잇는데 삼십일새벽부터 도도한탁랑이 폭위를보이며 침수하기시작하야 급류이기때문에 신의주나 안동현으로 어듸든지 오도가도 못하고 천운에맥기고 오직 날이개이여 물이 빠지기만 고대하며 홍수가 난대도 구조될길이 업는 이곳의 사람들은 고대하엿다고한다 그러는동안에 삼십일 정오까지에는 천오백명만 『푸로페라선』으로 구출하고 남은 삼천명은 각각으로 증수하야 구출작업 조차 위험하게되여 구조손을떼이니 재민들의 사람살리라는 비장한 소리가 끗치지안코 공포와 불안속에 날이밝어 오후까지는『푸로페라선』사오척으로 삼천명을완전히 구출하엿다한다 그동안셤사람들은 살어잇는듯십지안햇다고한다

◇

이가튼 섬에 생명을 부치고 사는것은 본래 위험한일이지마는 압록강가리 물이급류여서 장마만지면 급작히 증수되는곳은 더욱 위험하다 압록강류의 섬은 큰 위화도를 위시하야 어적도(於赤島)다지도(多智島)서호도(西湖島)류초도(柳草島)임도(荏島)등여섯섬이 잇는데 위화도만은 옛날부터 사람이만흔데 겨우농사를지어 먹는 빈농들이 사는곳으로 배편도 그리편리한곳이 못되여 한번물에나면생사의운을 하눌에맥기게되는 위험한곳이라 칠성판을 타고사는격이다 될수 잇다면 금후로 만일 천변을 피할 구조의 대책을 준비치 안흐면 그섬사람들은 언제나 죽는다 산다하는처참한 정경에 헤매이게될것이다

◇

그러고 마전동(麻田洞)으로말해도 신의주제방바게잇는 빈민촌인데 이번뿐이아니라 불과이삼년동만 중수되여도 수재를입어 집을떼우고 가장즙을는 처참한 정경에 빠지게되는곳이다 그런것을 그대로두어 년년히 수해를 입게하는것은 큰문제이다 하로밧비그들을 위하여 새로운 안전지대에 이주케하던가 다시제방시설을하야 마전동을 수해의 위험구역에서 구원해 내기전에는언제던지 수해소동은면치못할것이다 (사진은 본사구호반활동광경)

多事한七月氣象

中北은洪水、南部는旱魃 颱風의襲擊안바든것이天幸

【仁川觀測所發表】 칠월달은 일년중에 가장비가만히 오는철로서 해마다 이때이면 장마가 계속하야 각지에홍수가 나는것이례사이다 작년에는 락동강(洛東江) 영산강(榮山江)류역을 휩쓸든 탁랑이 금년에는 한강(漢江)림진강(臨津江) 압록강(鴨綠江)류역을 휩쓸어 그러치안하여도 가난한 백성들의 생활을 남북으로 도려다니며 더가난하게한다 총독부 관측소발표에의하면 칠월중조선의 기상은『태풍』홍수 한발로 자못다사다난하야 하순에는 한강과 압록강에 물이나고 그중한강은 이십삼일에 인도교하수위가 약구『메돌』에 달하엿고 대마친후세한 태풍은 대만 해협 부근으로부터 북쪽을 향하야 이동할 긔세를 보인까닭에 조선에서는 자못념려 되든터이엿다 실제로 당시 경긔도일대의 호우는 굉장하야 인천(仁川)가튼곳은 이십일일부터 이십사일까지사이의 강우량이 사백륙십『미리』에 달하엿섯다 다행히 태풍은 고긔압(高氣壓)에 견제되야 남중국으로 방향전환을하기때문에 무사하엿지만 이것이북쪽으로 직해하엿스면 대정십사년홍수보다 더한재해를 비저냇슬것이다 금번의 압록강홍수는 고긔압관계로 북부국경에 련일 취우가 잇는까닭이다 중부조선이북이 홍수지옥에 헤매는반면에 남조선 특히호남지방에는 봄부터 가물이 계속하야 륙칠월두달간의 강우량을 모다 합하면 평년보다 이백『미리』이상이나 부족하야 곡창의별명이잇는 전남일대의 농작물의 피해는여간 큰바가아니다 우량을 지방별로보면 제주(濟州)목포(木浦)부산(釜山)울산(蔚山)전주(全州)대구(大邱)등 남조선에는 평년보다 감소되고 인천 경성 강릉(江陵)원산(元山)성진(城津)중강진(中江鎭)등지는 상당히 만히 증가되엿엇다

天氣豫報

晴曇相交

颱風은 石垣島의南方 約三百키로海上에잇서 西北西로 進行하야 臺灣南端을通過하려는 模樣이요 또弱한低氣壓이 滿洲에잇서가지고 東進中이다 日本南東海上의 高氣壓의 勢力이 衰하여 滿洲日本의 氣壓配置는 不安定하다 滿洲朝鮮은 흐리고 處處에 小雨가잇스며 黃海沿岸에는濃霧가잇스나 南朝鮮과 日本은大槪天氣가조타

昨日 最高 三一·六 最低 二四·一
今日正午 三〇·二

救急常備薬 活命水 同和藥房

第十三回決算公告

貸借對照表 (昭和十年六月三十日現在)

資產之部	
未拂込株金	三、七五〇、〇〇〇·〇〇
預金及現金	八二四、三四七·四四
有價證券	八六八、〇六四·四四
身元保證預り有價證券	四八、七五〇·〇〇
動產	五八、五四七·〇〇
什器	六、三〇三·〇〇
未收利息	一六、六一三·七九
未收保險料	一三二、四二二·一七
代理店及他店貸	一〇九、五七六·三七
未收再保險金	三三、三九九·八八
供託金	九八、八一五·一九
假拂金	一〇二、八五七·五四
計	五、七六九、七六七·九七

負債之部	
株金	五、〇〇〇、〇〇〇·〇〇
法定準備金	六八、一〇〇·〇〇
特別積立金	三五、六六六·〇〇
責任準備金	三四〇、〇〇〇·〇〇
退職慰勞基金	一〇、三三〇·〇〇
支拂備金	二四、四〇〇·〇〇
未納稅金引當	七、七四〇·〇〇
代理店及他店借	九九、八六九·八一
未拂保險金	一九、一五五·八八
社員身元保證金	六八、九〇三·四六
未拂配當金	三三四·四四
假受金	一、三三九·六五
利益金	一五五、一六〇·八六
計	[illegible]

利益金處分	
法定準備金	[illegible]
株主配當金(年七分)	[illegible]
役員賞與金	[illegible]
退職慰勞基金	[illegible]
特別積立金	[illegible]
後期繰越金	[illegible]

昭和十年八月參日 朝鮮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

有利事業 사람은 언제든지 한가지 事業은 반드시 잇서야만 이世上에서 사람다운갑잇는 것이다。누구나 有利한事業만 잇다면 남모르게 하여볼 게재라는 것이 사실인데 그러한 有利한事業이 잇서도 여러가지 理由로 하지안습니다。本所에서는 여러분이 누구나 手工業으로 할수 잇는 有利한事業 을 一般에게傳授하랴고 定價二錢切手를 添付하야 請求하시오 ▲有利事業의一部分‖▲各種石鹼●各種ポマード●洋燭●食초(酢の素)●サイダー●各種白粉●各種クリーム●各種香水●各種ポマード●各種香油●其他日用品、化粧品七十餘種 工業原料 製造材料 直輸入商 京城鍾路四丁目二 榮信社工業所 振替京城二三一〇五番 電話光化門二一〇四番

腫氣 靑山膏 옴에 히벅고

景品附特賣 이가리소-스大瓶 一瓶사실때마다 鮮內에信用만흔 제일조흔비누 켄부비누 一個式 빠짐업시贈呈 イカリ ソース

計告 吳世彰室人羅州丁氏以宿患八月一日(陰七月三日)午后八時別世玆以計告 昭和十年八月三日 夫 吳世彰 子 吳□□ 親戚 □□□ 護喪 □□□ 發靷 八月五日 京城府□□□ 葬地 京城府□□□ 世元商會 李相翼 彭漢周

景品五十万圓提供 大景品 1 八疊座敷圖(五軒) 三、七五〇名樣 2 三越特製晴雨兼用女洋傘(一本) 六、二五〇名樣 3 三越特選割烹着(一枚) 三七、五〇〇名樣 4 食卓容器附 味の素(一個) 一〇〇、〇〇〇名樣 5 毛糸編物修理機(一組) 一五〇、〇〇〇名樣 等外 イマヅ防虫香(一函) 應募者全部 詳細規定은製品에添付 大阪市·大仁本町三 株式會社 今津化學研究所 景品附イマヅ製品은 蠅取粉外에 イマヅ芳香油 イマヅ殺虫劑 잇습 第二回抽籤 締切·八月廿日 發表·九月上旬

傳染病의媒介者인 파리! 水害後激增한파리、빈대、진드기불 빨이撲滅하라! イマヅ蠅取粉은、파리는勿論、엇던家庭害虫이라도問題업시全滅! 効力이液體殺虫劑와는天壤之間 家庭害虫驅除와惡疫豫防에 イマヅ蠅取粉 芳香油 등! 빈대用(赤罐) イマヅ蠅取粉 이따로잇습

第二回締切迫る!

八月四日より興行 昭和十年度第一 大都映畫超特作現代劇 原作…松波三郎 監督…太田辰三 監督 原作…松波三郎 監督…島田文郎主演 彼女の半生 甲賀武二、久松玉城 野路、三ツ子共演 淸水 明谷 寄子 ウイリアム·フォックス特作日本版 地獄特急 名畫 エリツサランティ主演 フランクロイド監督作品 ボールルーカス アレキサンダーアーグランド共演 リナーオーランド この世から忘れられた人々…新に行くの愛… 大都超特作本格時代劇 血吹雪名槍傳 悲痛演 江田譲二主演 監督石山稔 原作…小鯉一平 海江田譲二代表作品 元禄の快傑吉良邸討入の夜 名槍血吹雪に躍る痛快兒 慎里女盗の國 兇ぶ紐に翳す 大劍陣 本局八 櫻井町 大正館

八月二日부터 每日三回(午前十一時半 午後二時半 七時半) 映畫鑑賞은 團成社에서 언제든지第一級名作封切 ▲파라마운트超特作日本版 요셉폰·스탄벅監督 마르레-느·띄트릭히主演 사랑의피제三 로마노프朝의가쟁이 카사리나女王을둘너싼 사랑과陰謀와紅顏— 그의일생의 精炎 ▲파라마운트特作日本版 노만타로그監督作品 大學의리合 大學의리슴 ㅡ 다나토스 죠、메니、작코-키 하여본다면이러한기아닌、잇다 ㅡ ▲第一映畫全發聲映畫 正木不如丘原作 伊藤大輔監督 お六櫛 山田五十鈴、夏川大二郎、中野英、治月田一郎、歌川絹枝主演 全鮮第一 映畫殿堂 團成社 龍光 九六

두통과치통에 진노-

八月四日낮부터大公開! 大衆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均一 土曜·日曜祭·祝日은晝二回합 ㅈ…一時、밤…七時半 始映 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大怪奇劇 絢爛한殺人 全十卷 監督 밋지엘라이센氏 共演 카-루부릇숭氏 빅크라-크氏 캐디 카라이엘즈 작크오-키氏 大都映畫社超特作無聲映畫 現代劇 愛の審判 全七卷 監督…吉村操氏 主演…大岡啓董氏 咲村露子孃 米國도리이앗트社映畫 喜活劇 다구의幸運兒 全五卷 監督…아란도완氏 主演…다구라스외방스氏 近日公開 뱅가루의槍騎兵 朝鮮名畫撒水車 全十一卷 桃花劇場 麻浦桃花洞 電話 一三三

活命水

여러 온천물도 병에따라 고르라

아모온천이라고 마병에 다조치안타

급성병보다 만성병에 진찰을바더서

여름에 피서를 갓다고해서해안이나 산으로만 가는것이 아니라 온천으로 가시는분도 적지안흘것입니다。 그러나 온천을 가는데는 그저 막연하게 갈것이아니라 자긔의병에 비춰보아서 온천의 성질도 골르지안허서는 안됩니다。 그럼으로 무엇보담도 먼저 자긔의병이 무슨병인가를 정확하게알어서 온천을선택해야 하겟는데 온천이란

만성인병에는

효험이 잇서도 급성인병에는효험이업답니다。 그러면 엇더한 병에 엇더한 성질의 온천이 조흐냐하면

○……

위장병―『알카리』천(泉)、염천(鹽泉)

신경통―류마지스―염천 유황천

신경쇠약―『알카리』천

피부병―유황천

혈액병―철천(鐵泉) 고미천(苦味泉)

호흡기병―유황천

심장혈관병―탄산천(炭酸泉)

부인―병 염천이조흐나 약간석긴『알카리』천도 무방합니다。

대체로 이러케 구별할수잇스나 이것도 처음부터 의사에게 잘

진찰을바더서

자긔의 병을 분명히한뒤에 그병에 적당한 온천을 골라야합니다。

그리고 온천에 드러갈때는 이것도 역시 의사에게 병의정도를 물어보아서 그 지정해 주는대로 실행하는것이 조치마는 대개 처음에는 하로에 한번식 오분이나 십분쯤 드러가잇는것이 적당합니다。 그래서 차차로 오래되는데 따라서 회수도 만히하고 드러가잇는 시간도 느린는것이 조흡니다。 그러고 신경병이잇는사람、다시말하면

신경쇠약이나

『히스테리』가 잇는분은 넘우뜨거운물에 드러가는것은 조치못합니다。 그럼으로 온도가 나진물에서 오래도록 몸을담것다가 드러가는것이 조흐나 피부병은 뜨거운물일사록 조흡니다。

사람에따라서는 온천을 이삼일하면 약 일주일동안은 식욕이준다든지 또한 신경통이사람은 더압흐다든지 피부병이사람은 병세가 더하다던지하는 사람도잇스나 이것은 일정한 시강을지나면 자연히 나은것입으로…별로 걱정될것이업스나 만약

넘우심하거든

의사에게 물어보지안흐면 안되겟는데 이러한때문에 온천료법은 적어도 이삼주일이나 일개월가량은 온천에 계재해잇지 안흐면 안되는것입니다。

온천료법에는 그곳경치도 불일

―정신서 뉘안이될만한곳―

그리고 이밧게도 온천에 드러갈때 주의해야할것은 될수잇는대로 식전에 목욕을하고 식후에는 잘 휴양을하지안허서는 안되는것입니다。 또한 온천에 따라서는(특히 위장병일때는) 마시는온천도잇는데 온천물을 마실때는 반드시 물이 나오는어구에서물을 마서야할것이며 분량도 각각 병에따라서 다르나 위장병이면 염천、『알카리』천을 一〇〇 내지 二〇〇쯤、비혈이면 철천을 三〇 내지 五〇쯤 마시는것을 적당하다고하나 대개 지정한 분량이잇스니까 그대로마실것이지 공연히 욕심을 내여서 일시에 만히먹는것은조치못합니다。

체질에 따라서는 온천물을 먹으면 설사를하는수도잇스나 그대로두면 별로 아무일업는것입니다。

대체로 온천의 의학적효과는 이와갓흐나 온천만볼것이아니라 그 주위환경도 보지안허서는 안되는것이니 온천을 골늘때는 주위의 경치라든지 긔후、토지의고저、인심의 조코 낫븐것、교통가튼것도 될수잇는데로는 고려하는것이 조흡니다。

일사병과 열사병에 걸리기쉬운사람

살결힌사람은 조심해야됩니다

한낫계가 삼십도가차이을라가는날이게속하면 소위 일사ㅅ병(日射病)과열사ㅅ병(熱射病)이란것이 생겨나기시작합니다。 이두가지병은 매우 비젓한것인데 몬저일사ㅅ병에 대하야말하하면―

일사병은 태양광선이 머리의뇌(腦)의표면을 몹시 더웁기때문에 뇌에 충혈을이르켜 어것으로인해서 뇌에잇는 호흡중추(呼吸中樞)가 마비되여 이러나게됩니다。 그다음―

열사병도 이와마찬가지로 고열로인하야 이러나기는하나 외부의열보다 체온의 발산(發散)어 불충분한 경우에 이러나는것입니다 즉자기몸에서 나는열때문에 자기가밧는 신체의고장입니다 그러나 엄격한의미로 말한다면 이러한병은 우리가사는 온대지방(溫帶地方)에는 생겨나지 안는것이 원측처럼 되여잇는데 그러나 엇재서 이런환자가생겨날까? 다음의례를들면

병알코난사람、선병질(腺病質)허약자、신경질、로인、어린애들이 걸리기쉽고 또 이런사람들은그다지 더웁지안토라도 웬마한온도에서 운동을 과도히 하게되면 걸리게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습도(濕度)관계의 경우가만흔데 특히몸이약한사람이 습도만흔장소에서운동을 오래한다든지 얼골빗치힌사람은 얼골검은사람보다 이병에 걸리기쉽습니다。 이병의증상은 극단의 례이지만 행군하는병정이 한참 거러가다가 별안간 쓰러저 죽는수가잇습니다 그러치만 보통경우에는 대개인사불성이 되는것이 보통이며 응급치료법으로는 환자를 서늘한 나무그늘아래에 누이고 머리에 찬물을 끼엇거나 좀더대다할때는 심장잇는 부근을 물로차게하면서 곳 의사를 마지하는것이 조흡니다

그리시대

中毒防衛學

중독되엿슬때

성한 음식이라고 마음 노을수업다

병드러서 설사약은 함부로 못쓸것

이 무더운날 하로일을 마치고 집으로 도라가서 찬디찬 목물을 한다음 저녁상을 밧는자미、더구나 부인이 음식솜씨가 조흔데다가 이것저것 반찬을 만히 작만해서 밥상에 모시고 식지를 덥허두엇다가 내노흐면 엇더켓습니가 술잘놋는 분에게는 특히『히야시삐ー루』까지……。―그러나 여름음식에는 어째전 중독되기 쉬운것이만허서 큰판입니다。 목숨이 중한것은 누구나 매일반이레 그러타면 이러것도 아라둘일아니겟습니까? 다음글을 보소서。

복생선이외에 특히 이러타할 무서운 중독현상을 어르키는것은 별로업습니다。 단지새우라든지 게는상하기가쉬어서일반으로 중독물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치만 성한게살속에 기생충가튼것이기생해잇다가 중독을이르키는수는 각금잇스니 아라두실일이고、대개는 썩어서 즉상해서 중독을 이르킵니다。 이러케 무엇이고상해서 중독을이르키는것은 비단게、새우뿐이겟습니까 호박도그러코 다시마도그러코 생선도그러코 밥도그러코 무엇이고간에 다그럿습니다 음식그물건의 성질에 따라 중독도 되는정도와 증상이다소다를뿐이겟지요。

그런데 음식을먹고 중독이되엿슬때 응급처치를 한다고피마자기름을먹인다 관장을 한다해서 설사사를 식히는분을 이만습니다。 확실히 중독되것이 원인이라할것가트면 참말 잘하는 처치법입니다 그러나 만약 중독이 아니고 다른것이원인이되여서 그와가튼 증세가 생긴경우에는 이런처치법이 여간위험하지안습니다。 엇재그러냐하면 중독이 되엿슬때의 증상과 맹장염(盲腸炎)에 처음걸렷슬시적 증상과는―배가압흐고 아픈거라든지 토사가 나고 설사가나고 몸이더워지는것(發熱)이―흡사하기때문인데 맹장염에는 설사약을 절대로 못쓰거든요 그럼으로 책임잇는 의사가 진단하두한다면 먼저환자를 굼기고 아픈곳을 조사하되 맹장잇는 곳인가 안인가를확적히 안뒤 만일 상한음식이 원인이라면 그음식을가려먹은가족 또는 먹다남긴 음식까지라도 조사한다음에야 비로소 『하하―중독이로군!』하게되는것입니다。

맹장염은 오른쪽 아랫배가 몹시 압흡니다。 이것쯤은 요새 부인네들이 상식적으로 아는것이라하겟지만 정작급한일을 당하고보면 얼른 알기쉽잔습네다。 만약 맹장염을 중독으로알고 설사를 식히다 배를 더웁게한다(맹장염에는 배를 식힙니다)하다가는 큰일이지요 복막염이되기 쉬우며 복막염이되면 치료하기가 참말 어려운말슴입니다。 그런데 맹장염에서 복막염되기는 안ㅅ방에서 건너방가기만해서 빠르면 두세시간부터 느즌데야 하로나 하로반동안입니다。

아모리 비우조흔 사람이 잇서도 모르는일에 덤벙덜리업겟지만―그래도 알수잇습니까 미심한때는 곳의사를 불러대는것이 상책이지요!

世界文藝童話集

③ 처음행복

―露國 안톤·체홉作― 崔秉和 譯

『얼는 마지하러오십시요。 그리운 하라버지。 제발 이곳으로부터 데가내가 주십시요。 여기서는 왼집안식구가 나를때리고 지근덕어리고 잇습니다。 배는몹시곱픔니다。 그리고 말할수업슬만치 몹시 고생을 하고잇습니다。 늘 울면서 지내고 잇습니다。

어적게는 주인이 구두골로저의 머리를 따리엿슴으로 저는 마루바닥에가 기절을 하야 너머저버리엿습니다。 그리고 열마후에 겨우 정신을 차리엿습니다。 무어라고 말할수업는 불행한 저입니가。 엇더한개라도 저보담은 훨신행복스럽습니다。 어더케 여기서터 참을수가 잇겟습니가……。

아리오오나 에게도 액구눈이 에꼴에게도 마차군아저씨에게도 그외에 여러분에게 문안하야주십시요 저의 하ー모니가는 누구든지 가지못하게 하야두십시요。

그러면 내내 안녕히계십시요。

당신의손자

하라버지

『꼭 오십시요』

편지는 여기서 겨우 끄티엿습니다。 왕카는 그것을 네곱에접어가지고 어적게밤에 한―팩크(二十錢)로 사서둔 봉투에 너엇습니다。 그리고 봉투겻봉을썻습니다。

―고향하라버지에게―라고 그리고 그뒤얼마잇다가 고개를 갸웃하고 생각한끗에 하라버지를 썻습니다。

―콘스탄치·마가릿치―

다른사람에게 들기지안코 끗까지 편지를쓰게되여서 왕카는 너무깃버서 허둥지둥 저고리도 입지안코사쓰바람으로거리로 뛰여나왓습니다。

전날밤、왕카는 근처 새집 사람들에게 무럿습니다。 그러니간 편지라는것은 우체통 집어넛키만하면 우체부가 와서 우편구루마에 담어서 종소리를 댕그렁 댕그렁내면서 세계어느곳이든지 전해준다고 가르켜주엇습니다。

그래서 왕카는 의심하지안코 갓가운 우체통으로 뛰여가서 키틈느려가지고 소중한 편지를 우체통의아리로집어너엇습니다。 『딱!』하고 편지가 밋바닥에 떠러진 소리를 듯고나서 왕카는 안심을하고 그대로 집으로 도라왓습니다。

가엽슨 왕카는 이제는 마음을 턱노코 그로부터 한시간뒤에는 단단한 침대속에서 무사기한 잠소리를내면서 잠이 깁히 드러버리엿습니다。

이곳 심부름군 아헤는와서 석달이되엿지만 왕카에게 잇서서는 오날밤이 아마도 처음자는 단잠이엿습니다。

그 편안한잠가운데서 왕카는 꿈을 꾸엇습니다。 따뜻한 불로의 들은 하라버지가 안저서 맨발을 흔들흔들하시고 계시면서 쿡크들에게 편지를 읽어들려주는꿈이엿습니다。――

가엽슨 왕카、주교푸。 그의손편지는 무사히 고향의하라버지 손에 드러가겟습니가。(끗)

더위가다무어요

"여름도가을가티"

『요새퍽더우시지요?』 그러치만이러한장치를하고다니는이는 염천에도 더위를모르고 길을것게됩니다」―아메리카의『롱·힐리ー』라는 사나이가 더위를잇는기계하나를 발명하고서자랑합니다。 이것은 구두밋바닥에 풀무와가튼장치를해서 거를거를적마다입치이되면 바람이겟지요(아주산들산들한바람이아) 고무줄속을통해서 등으로、목으로、모자속을 드려가게마련을 한것입니다。 그런데옷저고리를입으면 그것이속에드러보지안케되니까 남이보면『저사람은 더위도안타네!』하고신기하게 여일것이딘 말할것업지요

童謠募集

本社學藝部로

라디오푸로

三日 (土曜)

◇午後六時三〇分 童謠齊唱과獨唱 一、齊唱 여름 二、同 소낙비三兄弟 三、獨唱 별애기동무 四、同 언니 五、齊唱 담모퉁이 六、獨唱 별님 七、同 외나무다리 八、齊唱 줄넘기 旺新學院兒童 피아노伴奏 金泰晳

◇同六時五〇分 兒童週間

◇同七時 라듸오學校 人造氷에對하야 張相吉

◇同八時 趣味講話 英國學校의現狀(二) 金顯大

◇同八時三〇分 流行歌今昔 一、명디롱자저서…鄭士仁作曲 二、京城은조흔곳…江口夜詩作曲 三、旅恨…池鶴絃作曲 四、世紀末의노래…金龍煥作曲 五、沙漠의녀자최 六、追憶…全基玹作曲 七、孤島의情恨 DK管絃團 全玉伴奏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 雲淡風輕 二、唱劇調 水宮歌 金煉守 鼓手 丁元燮

◇同九時三〇分 時調外 一、時調 二、지름 三、遊山歌 四、寧邊歌 五、노래가락 六、창부타령 金泰運 朴寅淑

四日 (日曜)

◇午後六時三〇分 안데르센先生死後六十年記念이야기 안데르센先生의生涯 李軒求

◇同六時五五分 心田開發講話 마음밧과그씨 基督申報社長 全弼淳

◇同七時三〇分 뉴ー스 天氣豫報

日獨國際放送

◇同七時五五分(東) 國內放送

◇同八時 (東) 獨逸로부터 一、올림픽벨 二、스포ー츠計演 第十一回올림픽大會 組織委員長(獨語)레오도르·레왈드 日本語通譯 올림픽大會名譽會長(佛語)피에르·드·쿠베르탕 日本語通譯 獨逸體育協會名譽會長(獨語)카ー른·딈ー므 日本語通譯

◇同八時三〇分 (東) (獨逸로부터) 音樂

◇同九時 (東) 國內放送

◇同九時一分 라듸오·코메듸 流線型結婚生活 全景(配役) 모던뽀이……李福本 그의妻……金春雨 그의동무……盧毅信 개똥어멈……金吉順 演出 李蘇童 效果 效果班

◇同九時四〇分 愁心歌外 一、閑山戎馬 二、愁心歌 三、염금 四、孔明歌 崔貞子 金玉仙

五日 (月)

◇午前九時五〇分 第九回全國都市對抗野球大會實況…明治神宮外苑野球場으로부터…京城府廳發送……

◇午後六時三〇分 안데르센童話 崔泳柱

◇同六時五五分 産業뉴ー스 經濟解說 朝鮮日報編輯次長 成仁勳

◇同八時 農村講座(二) 農業時事 金雄珏

◇同八時三〇分 音律 一、鄕唐交奏 二、吹打 笙琴 趙奉石 大笒 金一聲 細笛 李點龍 杖鼓 金一宇

◇同九時 映畵이야기『사랑조흔仙女』 李承雨

◇同九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竹杖芒鞋 二、唱劇調 沈淸이林塘水로나가는데 金昌龍 鼓手 韓成俊

曆

八月四日 (日)

陰七月建癸未(大)初六日 壬子 木·虛 執

●立秋 八日(陰七月初十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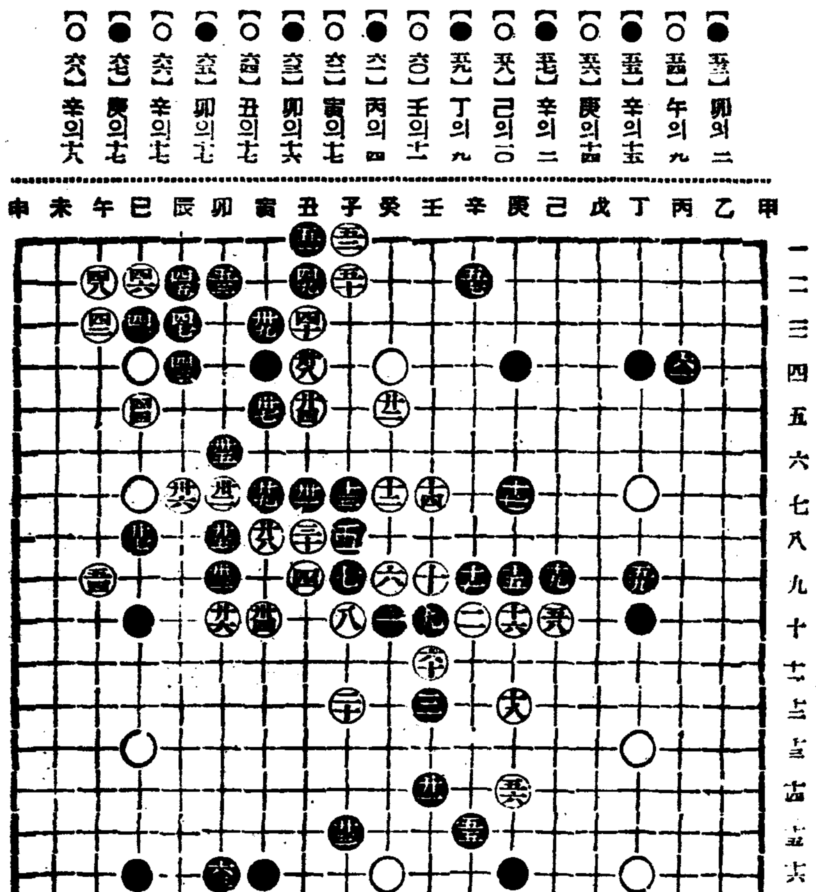
▲末伏 十二日(陰七月十四日)

▲處暑 (卄四日陰七月卄六日)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4】

白 閔仲植

互先黑 柳鎭河



【●五三】卯의二 【○五四】午의九 【●五五】辛의十五 【○五六】庚의十四 【●五七】辛의二 【○五八】己의十 【●五九】丁의九 【○六〇】壬의十一 【●六一】丙의四 【○六二】寅의十七 【●六三】卯의十六 【○六四】丑의十七 【●六五】卯의十七 【○六六】辛의十七 【●六七】庚의十七 【○六八】辛의十六

◇素極文氏評 白이 午의九로 鎭壓한은 實力이 瞭然하다 黑이 辛의二로 白을 逼迫하야 白이 黙然히 巳의十으로 外勢를 取하니 要衝所以가 豈非愛惜哉아 黑의希望이 困難에 逢하엿든지 壬癸十黑二點을 白에게 見奪하니 黑이 取勝法을 歎惜하고 丙의四白耳角을 鞏固케함도 是亦良策일가하노라 黑은 中央으로

短篇小說 求婚行 (四)

嚴興燮 作 高一 畵

속에야 똥이목구멍까지 싸인벼창호건 말건 거드름보아 허울이반반하면 이러쿵 저러쿵 뒤석기고 어울리는 세상이매 구레여 종호군이 말숙한 미남아가 아니라도 첫눈에 선뜻보아 어듸엔가 좀 남자다운 융통성이라도보인다면중신하는사람에게

『물건이 이만하오』

하고 내노코 자랑할만한배스심도 생길것이 아닌가

종호가 신랑감으로서 얌전한것、똑똑한것、학식도 보통이상인것、이런것들을 조곰도 과장하지안코 가장 정직하게 사실그대로를 내세운다해자 그런것은 속에 파뭇치여 한눈에 척띄이기어려울뿐만아니라 결국그것이 어느의미로보아 어느경우에가서는 도로혀 적은키、말는몸、못생긴얼굴들의 그러케탐내지안흘 천인상(印象)에대한 감푸라지를 하기위한 중신애비로서의 직업적 과장성(誇張性)에서온 주관강조(主觀强調)나 안인가 하고오해밧기가 빠ー ㄴ한

해온 중신애비가튼 여드름도그는 제눈으로 거울을 빗치여 제손으로 짜내일이업다。

대개는 내가 그것을 짜주엇고 내가그것을 짤때리도 그가 자질때나 누엇슬때 거이 똥밥적으로 몹시에 집행(執行)하지안흐면 성공하기가 극히 어려웟것 이엿스니 마리 고초가루나 퍼먹은 아이들처럼 『시―』혓(舌)소리를 내면서 눈쌀을 그리곤 거이 애원에 갓가운음성으로

『아야야……아……아』

하고 소리를 내뱃다가 내가손가락에서 조곰 힘을 죽이면 조곰 누으러지기는하면서도

『그만두어 인제 압허죽겟서』

하곤 얼골을 감추면서 내손을 뿌리친다

『여보게 종호 장가들여 달라고 졸으기전에 먼저 자네자네 몸치장을 해야하네!』

하고 엇던때는 롱담삼어 빈정거리엿고 엇던때는 다소친착한 태도로 충고를 하엿지만 그는

노릇이나 그런데다가 출중하는 삼십마루턱붉진내 총각으로서 더구나 현대도시(現代都市)의 화려한 색채와 음향의무대우에 제자랑을 음모하는 소위 모뽀、모껄들의 유두분면(油頭粉面)의 가면극(假面劇)의 영향이라도 바더 비록 한때나마 허직한 자긔몸치장을 그는 일절 염두에두지도 안는 모양이다

그는 한달에 한번쯤가는 리발소에서나 수염을 깍그면―(수염이라기보다는 털에갓가우나)―두푼、세푼이 거무스름하게 자라나 남보기에 흉해도 자긔손으로 한번 면도칼을 들어볼일이업다。

「그가 내집을 방문해와서 놀다가 어떤때는 내벼개를 벼고 소리업시 곤이잠이드면 나는슬멋이일어나 그보기흉하게 자라난 수염털이 깔닌 코스밋과아래턱에다 비누버큼을 칠해노코 손바닥에다 춤을 배터 면도칼을 삭삭 날세운다。

그는 바교적 문하지안흔잠꾸를 가젓슴인지 그나작고로도 길고길게『쿠ㅡ르르』코를 골다가는 뚝끈치고 눈을 스르르 뜨면서 벌떡일어나서는 아랫턱에서 비누버큼을 만지어보곤 빙그레웃으면서

『왜 또 살점베려고……』

하고선 맥국이 질질흘으는 손수건을 꺼내여 비누버큼을 줄처버리곤한다、

그이 [illegible]

[illegible] 특종(?)을 변절하지아니한다 그는 양복과속옷마저 실질본위로 해입는다

그는 겨울엔 흔이 고동색고르덴양복을입고 여름엔 누른뽀뿌링 가을과봄엔 목석긴세루양복을입는다

그는 절대로 양복에잇서서도 모던뽀이와가티 색조(色調)를가리고 바누질과 스타일을 뒤적이지안는다

그의양복은 거이가 긔성복점(旣成服店)이아니면 고물상에서 사오는것이엇스니 그가 양복을 가리는 표준을 구태여 캐내여본다면 다만 튼튼한것 때가무더도 잘모를것 갑이싼것 이라할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장만한 양복이면 별로 세탁하는법이업고 입는동안 대려입는다거나 줄을바로잡는법이 업다

그럼으로 그는 새양복을 입어도 몃칠만지내면 무릅자욱이 다른사람보다도 훨신 뚜렷이나타난다 이러한 비모던적인 다만 실질적인 순박한 종호군이매 혀대의 친녀성 가운데서가장 그에게 적당하다고 할만한 사람을 차저내기란 실로 한개의 때이야를 파내기 위하야아프리카의 땅덩이를 파뒤지는것가튼 중세긔적(中世紀的) 모험[illegible]을따기가아니면 한울에 올나가별을따는 공상(空想)이외에는 벌로 아모것도 안될것갓다。

皮膚內

寄生虫과 박데리아를 潰滅하는 滲透療法의 威力

滲透作用에依하야가장毛囊과 寄生虫의本體까지바리는 根本的治療法이發見되야서、從來의治療法으로는 고치지못하던 皮膚病도 徹底히 고칠수가잇다。

皮膚病은 무서웁나

皮膚病이라하면簡單하게보이지만 이것처럼우험한것은업다。 조금만 가렵고 [illegible] 神經이 衰弱해지며 밥맛도 [illegible] 低下되고맙니다。 하물며 顔面과手足等에皮膚病이생기면 [illegible] 만아니라 或是조치못한病이나잇지아니한가하고 다른사람이실혀하여 그때문에 就職을拒絶하기도하여 우리人間生活에 影響이큰것입니다。

文明病이라고한다

世上이進步됨을따라 사람의마음에서 [illegible] 洋靴 [illegible] 病이되어 手術을 하여야만하게됩니다 文明 [illegible] 皮膚病을繁殖케함으로 世人이이것을 文明病이라할도決코無理는아니겟다。

餘病、併發을 警戒하자

皮膚病으로生命을일헛다고하면 『설마』하고 밋지안는이도잇겟지만 그런例는無數히잇다。 가려운곳을손톱으로글거 그곳으로부터미균이들어가 丹毒、敗血症가튼死亡率이매우놉흔病에걸니는일이잇다。

寄生虫이皮膚內에 웅질웅질한다

皮膚內部에는 무서운 寄生虫이 들어가면、그것이번집、음냉습증等이되는바、그려고도 그것들은 깁히 皮膚內部에 侵入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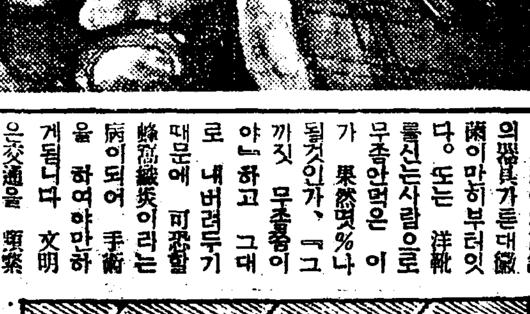
여、혹은 뾰데기를 맨드러 우리들人間의 맛난部分을 [illegible] 하면서 生命을 [illegible]

무엇보다도皮膚病은 [illegible]

皮膚病에 對한 滲透療法의 成功

皮膚의 深部에 [illegible] 하는 寄生虫에 對하야 [illegible] 理論上으로 [illegible]

이에對하야 專門家가 努力硏究한結果、滲透膜及毛囊現象의理論을 應用하야서、皮膚角質下에 滲透하야 毛皮까지에 到達하는 强力한殺菌、消毒、治癒의 作用을 發揮하고、더구나 小兒에도 副作用이 이러나지 아니하는 理想的藥劑의 發見에 成功하엿다。 이것이『皮膚차ー지』가 第一이라고 至今大評判中에잇는 것이라 論이 어려운때를 當하야서、갑도싸고 皮膚病治療에 一番 오게되엿다。



더럽지안코압흐지안코도皮膚深部에 하야、消毒、殺菌治癒의三作用을發揮 但只一日數回外部에다、발는족

皮膚チヤージ

한번발너보시오

손쉽게 잘 낫는

근질근질가려운皮膚病、무좀、마른옴、옴부스럼、땀띄、버짐、여드름、비듬、비대뚜等寄生虫

全國有名藥店에 有함

本舗 東京神田花房町 山崎帝國堂

夢想의 湖畔

演劇時評 創作戱曲振興을위하야 ②

柳致眞

그러나 以上과가티 劇藝術硏究會에서 創作劇을위하야 飜譯劇上場의勞를 取하얏는데도不拘하고 二나다난

【結果】에잇서서는 一般的 戱曲熱은 차차떠러저간다。 여기對해서 劇藝術硏究會는 어떠케答辯할것이냐?하고 反問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에對한 나의見解는 이러하다。 事實 從來劇藝術硏究會에서 創作劇振興에 積極的努力을 못햇다。 그것이 한誤謬라면하는수업다。 그러치만 現在 文壇的으로 戱曲熱이 떠러진데잇서서는 그罪科를 劇藝術硏究會만이 질것은 아니다。

첫재로 조선의 演劇運動全體가 어느客觀的情勢로써 지금여간沈滯되어잇는게아니냐。 이事實에 드되어 文壇的으로 影響하야 戱曲産出率을 低下시키여잇는것을 우리는 看過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나는 오늘의 戱曲熱低下를 【漠然】하게 客觀的情勢에만 돌리고 達觀해나가고 십지는안타。 그보다도 根本的理由가 따로잇는것이 아닐까 나는 생각한다。 卽──

(1) 作家自身의戱曲에對한바不誠意

(2) 從來飜譯劇의飜譯演出에對한缺陷

이두가지의 理由를 나는여기에들어서 現在低下된 戱曲熱을說明하는 同時에 앞으로 創作劇振興策에對한 한示唆를 獻하야보려는것이다。

(2)의 「從來 飜譯劇의 飜譯演出에對한缺陷」은別項으로두고 다시詳論하야 보려니와 여기에나의가진 意見을 約言해보면 여래까지의 飜譯劇의 飜譯과 演出과 上演은 그態度가 너무나 觀衆에게 不親切하엿다는것이다 卽 飜譯劇上演은 觀衆의 理解를 求하느니보다 오히려 劇團人自體의 敎養에 資하러엿다 그때문에 上演된 飜譯劇은 結局 【觀衆】과 距離를가지게되엇다。 結局 觀衆과 距離를 가진 演劇이란 演劇으로서의 敗北를 意味하는것이다。

이것이 從來의 飜譯劇上場이 애를 쓰노라고쓰면서 그結果에 잇서서 創作劇振興에 參與치못하고 그냥 落花되어버린 所以가 아닌가십다。 여기에 對해서는 別項에서 따로 詳論해보겟다。

(1) 作家自身의 戱曲에對한바不誠意

여기에 내가 作家自身의 戱曲에對한바 不誠意라함은 作家가 戱曲을쓸때에 그作品을 戱曲으로써。 完成시킬려고 하기전에 한餘技로써 戱曲을 쓰는것가티 내게는보이는까닭이다 卽 나의눈에비친限에서는 암서 만흔 【作家】의손으로 一年에 二十餘篇의 戱曲이 發表되어는데 그 作家가 그戱曲을 制作하는 動機란 그때(新劇運動의 熱이 劇藝術硏究會의 創立으로 새로히 이러날때 부터) 그新劇運動의 氣運을 바더서 『나도 戱曲쯤은 쓸수잇소』하는式으로 小說 詩 흑은 評論가튼것을쓰는 餘技로서 한번戱曲쓰는재조를 뵈준것갓다。 그러가 一旦 新劇熱이떠러지니까 그런재조꾼들은 벌서 그재조를 보일必要를 안가진것이다。 最近그들이 『戱曲?언제봣느냐?』式으로쏙드러간所以이다

以上과가티 말해 버리는것은 여태까지戱曲을쓰려하든 作家에게對한 【無禮】한發言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아모리客觀的情勢기로서니 여태까지 戱曲을쓰든作家가 이와가티 쑥드러가버린것을 본지 그들의 여태發表한戱曲이 대개 戱曲의初步的約束들것 밟고 基本的準備를無視하고 制作되것이라든가、너무나 作品에 對한態度가『이지·고잉』해서그結果가 作品으로서 上演에不可能한戱曲이 最多數라는것……이런것을 綜合하야보면 畏論을 要論이라고만 一槪해버릴수는업을것이다。 戱曲을쓸려면 위선 舞臺的拘束을알고劇場的約束을 알지안코는 안될것은 勿論이다。 結果戱曲의戱曲다운맛이란 舞臺的拘束美(이런術語가잇는지모르나)에 잇스니까……그런데 여태 【發表】된戱曲은 너무나 戱曲에서距離가멀고, 때로는 하로저녁의卽興에서된듯한 그러케 粗雜한것도잇다。

모름지이 우리作家는 演劇運動이 創作劇과步調를 마추어주지안는다는 不平을,가지기젼에 劇作家로서의 基礎를 닥어보도록 위선힘써야 할것이다。 要컨대 客觀的情勢니 劇運動 그自體가 自己를 푸대접하느니 하는말은 그허물을 보다 만히 自己自身에다가 돌리고 조흔 戱曲을 한篇이라도 만히 쓰도록 努力하는것이 영리한 짓인줄 생각한다。 그러는 一方에서는 劇運動그自體가 率先하야 創作家를 所重히알고 創作劇의 【培養】에 全力하여야 할것이다。 그러지안는以上 創作劇의出現을 바랄수업스며 조선演劇의 向上을 꾀할수업고 조선演劇의 存在를 뿌리박을수 업을것이다。

探報臺

일허저가는 詩歌

今春에 詩人、[illegible]은 詩歌에 關聯하는 글이라는것을써서 當時그詩壇에 자못 적지안흔센세이순을 이르킨일이 잇섯다。 그러나 우리詩壇에서는 그러한 告別文이 낫타날일도업시 詩歌는 詩人에게서 忘却되고잇다。 요한、巴人、無涯갓흔先輩들이 붓을씻슨지오래이고 그뒤를이어 一時에 盛하게活動하든 芝鎔 起林갓흔 中堅들조차 近者에는 더만히 沈默을직혀 沈滯하다고 들떠드는 우리文壇에서 詩苑은 더한층 荒蕪한 感이업지안타。 대체로 詩는 詩人의 呼吸이며 脈搏인同時에 그것은 곳 그社會의 呼吸이며 脈搏인것이다。 그럼으로 萬若 詩人과 또한 그詩人이 處해잇는 社會가 呼吸이잇고脈搏이뛴다면 그社會에서 詩가업서질 理致는萬無한것이다。 더구나 오늘의우리네의 世代와가티 갑분呼吸과 드놉흔脈搏을가지고서 詩人이 詩를 볼으는것을 이저다면 그것은 카나리아가 노래를 이저버린것보다 더 설어운일일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社會의 呼吸과 脈搏을 詩人이 自己의 그것으로 體得하여서 詩로 表現한다는것은 勿論 어려운일중에도 어려운일이다。 그러나『뮤-즈』의 恩寵은 항상 이 어려운일을 突破하려는 사람에게만 점지되는것이니 우리네 詩人은 詩쓰기 어려운이 쩜에서 한번 더 깁히 생각할정성과 한번 더 이러나설 勇氣는 업는가? 우리네의 詩人으로서 中堅이라고 할만한이들이 이러한 精誠과 이러한 勇氣를 가저야만 쓰기쉽다고 詩쓰는 어린 詩人들의 나아갈 方向도 열여질것이며 우리의 詩壇도 『폴레이야-드』의 새벽빗치 빗취여올것이다。(如水)

納涼隨筆集 (8)

黑夜崇拜

金復鎭

어서 밤이와다고。

나는 밤을 기다린다。 서울의 밤―나는 이것을 기다리며마지안는다。 暴陽에 시달린몸이 저녁이라고 먹고나면 밤은 어대서인지 차차로 갓가워온다 붉은꼿푸른닙이 좋든러 걸어지고 【親】할사람 미운사람할것업시 分辨하기 어렵게되고 그리고 서울의 가지가지의 黑白이 보이지안케하는 黃昏의帳幕 이 밤이야말로 내가기다리는것이다『헤겔』과가리 지러가는 暗夜에 牛毛의 差別를 알어질수업을것이다。 是非曲直을알면서도 正邪를알면서도 修理를 바처보지못하는 白晝보다는 그러타 차라리 나는 밤을조와한다。 밤이오면 電燈네거리로부터 東으로 西으로 南으로 北으로 電燈 瓦斯燈『네온、싸인』燦爛한불이 켜진다。

녯날로부터 詩를읽고 【詩】를생각하던 數만흔 人物이 머리위에는 가반작이는 별이잇고 가슴에는 崇高한 道德이 잇다는등 또는 별을 보고 纖纖하는 人間을 그리엇스나 나는생각한다 잘하엿던 못하엿던간에 어두운밤 밝은 電燈을 對할적마다 人類의 文明祖上이 다시금 가슴의 功績을치다 한층에 잇는별이 人類의命、祖上의 피로서 生産된 이로쪽밝고 이다지고흔 電燈네온、싸인들新燈에 比할수잇슬가。 나는 電燈을 사랑한다 『네온 싸인』의 요렴을 조와하고、더구나 비오는밤 버와 【燈】불빗치 얼싸안고『아스팔트』길위로흐르는것을볼때에 나는그저가슴이 가득차서 질빗이다 人間으로서의 喜悅과 祖上의偉大한遺産을 相續바든 幸福과 그리고 神明을 克服한 優越感에 呼吸은 놉허진다。

밤은 人類의成長을 가장잘알려준다。 그래서 때로는 寂寞을 늣기고 때로는 懷疑를갓는 사람들의게 自信을 주고 矜持를주고 勇氣를준다

× ×

黃昏은 모든것을 희보라빗으로 칠하여버리고 밤은 모든것을다시퍼 깁고 潤나는 검은帳幕으로 싸버리고만다。 不正을 보이여주고 【靑】[illegible] 되고 [illegible]이나 차라리 밤이

조금괴로운바 적다고 하는것이다。 괴로워서 씨달리거던 꿈으로가고 꿈이깨거던 머리속에서 外에아무 道理도 내게는업다。 世上사람들은 山으로 바다로 더위를避하야 달아돌난다 짬한방울 흘리기가 그토록 실허서 避暑를간다고들한다。

봄에는 꼿치피고 겨울에는 눈이오는것은 人類가 自然을理解하기 비롯할때 收穫한 첫知識이다。 배꿉호면 밥을먹고 졸리면 잠올자는것과 【秋】도 어긋나지 안는것이다。 여름은 避暑는것이잇고 여름이잇는곳에잇다。 은 다가치더웁것이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여름을 避하려간다고한다。 여름이 업는곳이 果然 어대이냐。 天地가 더위에 허덕리여잇는때 大衆 어되로避할곳을 갈뿐는

것이냐。 모도가 답답하기만하고나 어서 밤이나 와스면─밤이오면푸막히였던 가슴이게우열리어진다 【燦】爛한 불빗과 기리묵다。 懷抱를 맘하고십

× ×

어두운밤 불빗흔 人類文明의 最大한 물의發見은 반작거리다바이니 이불이 千萬年을두고비에젓고 바람에날리면서 그씨를 傳하고 祖祿을바꾸고하야 지금에 이르럿다。

燈불을對하면 千年前、萬年前의 거룩한祖上을 對한듯하다。 우리의祖上이 만드러노흔 燈불은 가슴을헤치고 삿삿치밝히여 주고잇다。

이밤이 어서와서 燈불을對하야 無限한情을 풀고십다。

밤이어 어서와다고!

歸鄕文藝

民謠採集記 ─慶北地方을中心으로─ 3

城大文學部 金思燁

다음은 한五里쯤 倭館가는道路를따라 南으로가니 김엽해크기가 浦南二區만한 마을이 보인다 浦南三區다 亦是洞里압헤 놀고잇는 兒孩들에게 집을물어서 차저가니 區長집은 【洞里】에서도 옹숙드러간 곳에잇다。 마증區長이 집에잇서 多幸이엿다。 놀난듯이 싯그럽게 짓는개를 꾸지지면서 區長이나온다。

六十의 고개를 넘은지오랜듯한나희、키가크고 몸집이健壯하며 얼굴이 길고 머리는 버서젓스나 코밋은 바뤼수염이입도 잘보이지안호리만큼 더까지 덥혓다。 적삼고름은 되는대로매여잇고 아랫고의는 허리끈을 밤만매여 아랫배가 다드러나잇다 크고검은눈을 무슴게굴리면서 나온다。 먼첨우리는 허리를 굽혀 人事를하고 紹介狀을모-든 딴說明代身에 보히려고내밀엇다。

『그래이게뭥-기요。 나는글을모르는구만』

날러러읽어라고 도로밀처낸다 하도이가업서 우리는 노래를 모으러 이까지왓는데 이것은面에서 어더온紹介狀인것을 【簡單】히說明해주니

『노래라니 엇던노래말인기요』

하며 채처 못는다。 그래서 씨가지고온 노래를 몃장읽어드렷드니

『허─그런노래업소。 이런데누가 하는기요。 아(兒孩)들이나 하지만, 어데그까지것 별소리로 씨부작거리는것뿐인데──』

『그래도 이런村에서라야 이런 노래가 만습니다。 이럴테면婦人네들이 삼사무면서 노래를 하거나 或은 젊은 딸내들이 싀집사리하면서 그싀집사리를 노래한것도 잇슬것이고 머슴들이 논매면서 하는노래가튼것이 잇지안켓습니까? 이런 노래를모으려고합니다』

『어─出시(업지여) 누가 맛청구효(밋첫기에) 그런노래를하는기요? 設或 잇다손치드래도 그런것을 불러주지도 안을기요──안될말이지』

하면서 吾不關焉의 【態度】를取한다。 區長이 이럿토록 無知한바에야、우리는누구를 붓잡고 相議해볼까더할말이 업서 失禮햇다는 말을남기고 그洞里를 나와버렷다

午後에 이르러 개이기 始作한날새가 더움을 더加하야 길것기가 困難이다。 한五里 더가서 中旨洞이란 곳을 차저가니 이곳區長은 우리들의 온뜻을잘 사리理解하야 모아 주겟노라고 한다。

오날은 더차저갈 時間도 업고 해서 길便에잇는 원두막에 드러가 참외를 사먹으면서 疲勞를 [illegible] 날이 저물어서야 [illegible]하엿다 다가 도라왓다。 柳氏는 近情에 出張갓던 所에 在勤하는이며 柳氏는 이곳面에 對하야 鄕土의民謠와 趣味가집혼이다。 그는우리의 차저온뜻을 歡待하면서 밤에는 [illegible] 여러가지로 村에서 하는 노래를들려줄기도하고 其他노래에 올도울랏다。

이러로록 한四五日間 그곳에 留하면서 낫이면 附近洞里를차저서 [illegible]으로 노래의 附託도 하고 直接聽取하기도 하며 밤이면 浦南洞마을에서 노래를모앗다。

식골六月은 가장 奔忙한 時期이다 논메기(畓의除草)、蠶桑의播種、桑田의除草、菜의培土、馬鈴薯、大麻等의 收穫移栽의 耕耘等으로 一年中 農家에서는 가장 多事한때다。

낫이면 男女老少할것업시 모다 들에나가서 찌는듯한 햇볏아래에 苦役을하고 저녁이면 婦人네들은 베를짜고 男子들은 논에 물을 넘키에 밧부며 짜른 밤이라서 늣게야 잠을 이루려고해도 빈대、벼룩、모기가 그것조차 妨害하는 狀態다。

엇던날 밤 稀微한 호롱불밋헤 洞里老婆들을 請해노코 술을바더다 【待接】해가면서 노래를식켜서 바다쓰는데 그中한老婆가 주름살쏙에 웃음을 지우면하는 말을드를때 소름이 끼칠듯겻다。

『노래라는게 무순노래게 (무엇노래입니까) 더웁고 땀에 못배겨하는 몸버림이죠 (더움과疲勞를못이겨서 하는몸부림이지요)』

닷새되는날 나는 그곳에 柳君을남기고 그洞里를떠나 올때 내 가방속에는 三十餘首의 노래가 드러잇섯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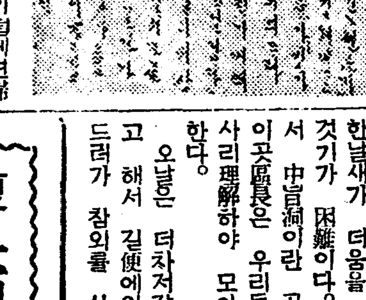
이제 그모은 노래를 分類하면 다음과가다

A、農事歌
1、移秧歌(모싱기노래)
2、白挽歌(방아노래)
3、麥打歌(타작노래)
4、名節時歌(地神밟는노래)
5、蠶籠時歌

B、婦謠
1、시집사리에關한노래
2、寡婦노래
3、베틀노래
4、動物特히鳥類를노래한것
5、傳說歌(상사가락지노래)
6、探菜歌
7、男女의情事를謠한것

C、敍事歌
1、소노래
2、꼿노래
3、바늘노래
4、줄치노래

第一코-쓰를마친 筆者는其後 第二코-쓰(軍威、義城、安東、靑松、盈德、迎日、永川方面) 第三코-쓰(尙州方面) 第四코-쓰(金泉各面及 忠北二三地方 永同、黃澗等地)의 프란을 세운後 입이第一코-쓰까지를 마친感으로 이에그것까지를 함께 紹介할것이로되 制限된紙面이 최신超過되엿슴으로 짐짓 이를省略하고 이번코-쓰中 어든노래中 代表될만한노래를 적고擱筆한다



(寫眞說明 一婦人이 손소러어준 노래의一部)

夏期 歸鄕文藝 投稿歡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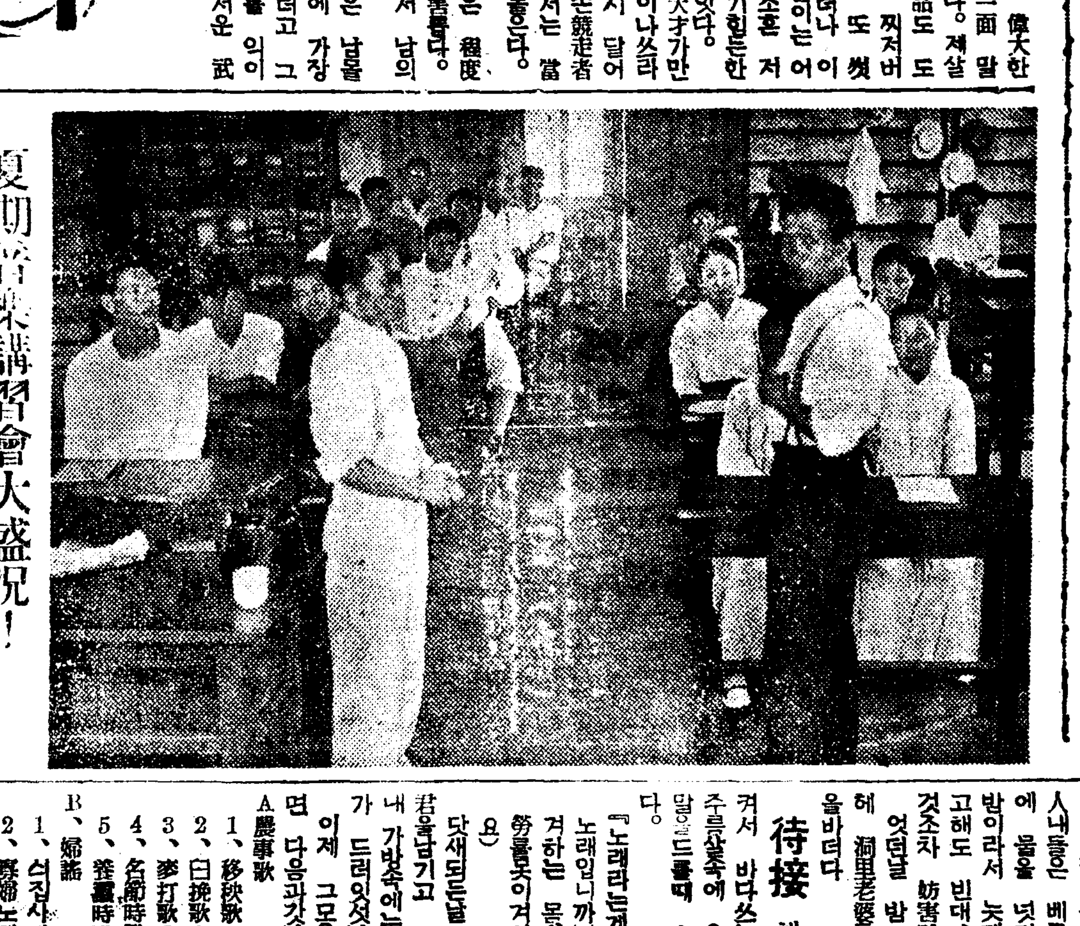
規定

1、隨筆、日記、紀行、實話
2、專門學校學生程度以上
3、四百字原稿紙十枚以內
4、寫眞添付도無妨

(但原稿取捨는本社에一任)

朝鮮日報社學藝部

夏期音樂講習會大盛況!



在東京音樂家協會 主催로서 本社學藝部 後援인 夏期音樂講習會는 豫定대로 지난 一日부터 聲樂 피아노 바이올린세 科目으로 區分한 各科가 午前午後에 갈려서 市內淸進洞京城保育學校大講堂에서 열렷는데 日氣의 酷炎에도 不顧하고 講師나 講習生이 모다 우리 音樂文化의 建設을위한 情熱에 채여 자못 元氣잇게 講習에精進하고잇다。(寫眞은聲樂科의金文輔 講師와 講習生一同)

隨想 나의文學前 (下)

許俊

鬪牛를위하야 鬪牛場이 잇는것과가리 내魂의住所도 鬪爭이 떠나면 아모 所用이업슬것이다 天國의 全領土를줫쓰는 王의 王者가되느니보담 나는 차라리 地獄의조그마한 末席을차지하려고한다──내게는 前進이 必要하다。 그러고 늘 魅力잇게 享受할수잇는것이라고하는것도 實로 그것이주는 저悲慘이라는것에 지나지안치안는가!

아모래도 그러케밖에는 내魂을說明할길이업다 내가充分히이 悲慘을 씹기위하야는 압헤서어느누가내 太陽을 갈이워서는 아니된다。

이리하야 人間의 두族屬中의 人은 亦是 더오게네스의後裔인 수밧게업는것갓다。

【絶對의寂寞】

아─그러나 얼마나 무서운 소리가들려오느냐。

世界가 破壞하며가는저소리、世界를 形成하여가는저소리。

이런 寂寞을가저야하고 이리 寂寞을 描寫하여야한다。

不得已 어느것을 擧하야한다는 境遇에는 나는사는쪽을 擧할것이다。

그러나 내가 쓰기도하는날에는 나는 單只 한사람 내 短點 長點을 잘알고 내 허물을 잘아는 단한사람 怜悧한 내안해를 相對로 쓸것이다。 그에게 이야기 하는동안 속일려고하여야 쓸데업는 노릇이다。

作者가 생각하는讀者는 恒常怜悧하여야한다 그러기에 作家는 自己몸을 나타내이는 法은아니로되 언제나 나타내는 自己를 속일수는 업는일이다。

눈아페 잇슬때는 가지各色의것이 다 보이다가 보이지안는곳에들어가면 마이나스도업서지고 플러스도업서진다。 無限한것은 마찬가지 無限한것이오 無限은 無限을 아는까닭이다。

天才가 잇는것이라면 偉大한 天才는 내 생각에는 一面 말할수업는天痴가아닌가한다。 제살을먹어가며쓴 자긔의作品도 도스토이에프스키-는 잘 찌저버렷고 찌저버리기爲하야 또 썻다。 더는 몰으지만 그러나 이러케 자기살을잘 찌저버리는 어둔한中에 어둔한 사람조흔 저 『白痴』는 우리가 諱하기힘든한 큰 天才엿다고하는말도잇다。 實相은 우리에게 너무 天才가만허서 걱정인것이다。 마이나스라도 동무에부치고 限업시 달어날것가튼 無智한 마라손競走者는 이러케 밝은세상에서는 當分間 보지못할는지도 몰은다。

程度를 넘어선 謙遜은 程度를넘어선 高慢보다도 害롭다。 그는제 허리를굽히면서 남의 절을 밧는다

그러나 眞實된 謙遜은 남을 으게 풀은 高慢인까닭에 가장 알흠다운德인것이다。 그러고 그것은 남 몰으게 天才를 익이고잇는까닭에 第一 무서운 武器이다。(完)

古建物巡禮 (18)

文官試驗場所 春塘臺

湖岩

春塘臺는 昌慶苑안에 잇스니 李朝五百年동안 文官試驗을 흔이 이곳에서 擧行하엿슴으로 지금은 그臺가 헐리고 터만 남엇는데 博物本館의 後面으로 水亭池의 南端에 이르는 【一帶의地가】 곳그것이다

녯날 朝廷에서 文武官吏를 採用할때는 반드시 먼저 試驗을 보앗는데 이官吏採用 試驗을 그때말로 科擧라고 일컷고다。 科擧法이 朝鮮에서 시작되기는 今年乙亥로부터 九百七十七年前인 高麗光宗九年 戊午이니 光宗께서 後周歸化人 雙冀의 建議를 조차 科擧法을創設하엿다 朝廷에 文武兩班의別이 甚하여진것도 이 科擧法이 생긴以後의 일로서 科擧法이 朝鮮人에게 對하야 利益을 끼첫는가 弊害를 끼첫는가 어느편이 더만핫는가 【이는容易히】 【斷言할수업】거니와 新羅固有의 花郞制에比較하야 볼때 科擧法이 文弱에 原因하는缺陷이 잇는것만은 事實이다 完全한制度도 오래거되면 弊害가 생기거든 하물며缺陷이잇는 制度그自體에 잇서는 科擧法을 運用하는 그사람들까지 公明되지 못햇슴으로 弊害가 더욱 甚하여젓다 이弊害만흔 科擧法을 甲午更張時에 廢止하게되것은 理勢의 自然한바라 할것이다。 그러나 科擧法이 光宗의 創設로부터 高宗의 廢止에 이르기까지 거의 九百四十年間이나 持續하야 오든制度이니까 우리가 그리 [illegible] 【簡單한일은】 【아닐가한다】

科擧는 三年에 一次식 보이는것이 正式이엿스나 이正式밧게도 여러가지 名目下에 臨時로 보이는것이 만핫다。 科擧에 小科、大科가 잇스니 요새말로하면 小科는 普通文官試驗이요 大科는 高等文官試驗이라할가 그는 어찌든지 小科、大科를 進하야 各기 初試、覆試가 잇서서 小科의 初試와 覆試(會試)에 入選하면 生員進士가 되나니 生員進士가되면 곳太學生(成均館儒生)의 資格을 【갓게됨으로】 【이意味에서】 小科가 普通文官試驗보담도 차라리 帝國大學入學試驗이라 하는편이 도리어 알어듯기 쉬울는지 모른다 그러나事實에 나가보면 生員進士가 반드시 太學生노릇을 하는것이 아니라 그中에는 叅奉가 [illegible] 하고 官行(蔭職)으로 나 大科及第아니하고 守令으로 나가는것을 이름함이니 그럼 [illegible] 未非하나 [illegible]의 官職에서을 어나오것이 아니지도 모르것 으로 나가는이가 흔햇는데 近代에 올수록 이傾向이 甚하엿다 小科는 대강이러하거니와 大科即高等

【文官試驗은】 【어떠햇는가】

上述한바와가티 大科에도 初試覆試(會試)로 난호인바 初試의 受驗者는 一定한 定員이 업고 會試의受驗者는 定員이 잇섯스며 大科의殿試를 應하는 受驗者는 小科를조린 生員進士이지마는 반드시 그러치도 아니다 그러나 한번 大科에及第하면 곳 高等文官이 되엿섯다 여기注意할것은 科擧보이는 名目을 따라 謁聖制(承旨가成均館太學生을 적어다가보이는科擧) 謁聖制(님검께서 文廟에拜謁하실때成均館에서 보이는科擧)、節日制(正月人日制、三月三日制、七月七夕制、九月九日制、黃柑制)、增廣制(國家大小慶事가잇슬때보이는科擧)。 其他別試等이 잇섯스며 武科人의

【特殊資格을】 【따라錄選科】

明經、講經、[illegible] 賢良科(德行잇는 人材를 出用하는科擧)、錄蔭科(때잇섯다가 고업서젓다)、忠良科(丙子後事히三學士子孫을爲하야 設한科擧)等의 名目이 잇섯섯다 그리고 科擧보이는 場所로말하면 宮一定한것이 아니나 小科會試는 禮曹와 成均館이아니면 三軍部와 樂衛營(現雅樂部)으로 充當하기도 하엿스며 大科會試에 特히 님검께서 親臨하사 殿試하실때는 景福宮의慶武臺가 아니면 【昌慶宮안의】 【春塘臺이여】서 前者보담도 後者가 年代가 오래니만큼 만히 使用하게되것이다 비록 오늘날 와서는 이두가모다 업서지고 비인터가 되엇스나 오히려 살펴보면 녯자취를 어림풋이 짐작할것이다。

新刊紹介

◇新東亞 八月號 京城府古市町四三 新東亞社發行

◇新家庭 第二二號 京城府太平通一丁目二七 新家庭社發行 定價三十錢

黑風 (98)

韓龍雲 作 金熊超 畵

정탐(偵探) 4

왕한은 성원의말과 순옥의말이 너무도 틀리므로 이상히생각하얏스나 녀자로서 사랑하는 남자가 잇다할지라도 다른사람을 대하야 업다고 하는것이괴이한일이 아니므로 순옥의말을 그럴듯하게 생각할수도 잇고남자로서 친한사람에게 대하야사랑치안는 녀자를 사랑한다고우스개말을 하는것도 괴이한 일이 아니므로 성원의말을 롱담으로 알수도 잇는것인즉 왕한은 성원과 순옥의 관계에 대하야는 특별한 생각을 가지지 아니 하얏스나 한여간 순옥의 말과 행동이 이상하얏슴으로 가시도친 꼿송이를 대한것처럼 버리자니 아깝고 취하자니 조심스러웟다 그리하야 왕한은 순옥의말을 꼿가지캐지아니하얏다 지라하든 두사람의말은 꼿이나고 순옥은 다시오것다는것을 약속하고 도라갓다

왕한은 순옥을 보낸뒤에 그의 말과 행동이 너무도 노골적이오 비열하야서 녀자답지못한 태도에 실증이나서 다시금 불쾌를 늣기엇다

순옥은 도러가는길로 자기의 애인이오 왕한에게 소개하야준 성원을 차저갓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소개를 가지고 가서 잘차저보앗습니다』

『나의 소개효력은 지나갓습니다 이번은 두분의 정의로맛날것이겟지오』

하는 성원은 조금 이상한눈으로 순옥을 본다

『에구 말성도 스러워요 한번 본 사람에게 정의는 무슨정의야요 열번을 보러래도 소개하신 힘이지오』

하고 가벼웁게 눈을 흘긴뒤에 다시 애교의 웃음을 웃는다

『대관절 차저보니 엇더합데가』

『한번보고 알수가 잇지마는 대강은 인상을 어떠지오』

『어든 인상은?』

『혁명파로서 손속잡기는 부족하다고 하니보다 의심나는 [illegible] 아모튼개도 모르는 바보로 아시는 모양이오 그런』

하는 순옥은 눈초리가 새초롬해 지면서 날카로운 말소리로 말을하고 고개를 조금 숙으리면서 도리킨다

『그럼 내말이 잘못된 세음인가요 그만두고 그 리유나 말슴하시오』

『흥 내말이 잘못된 세음인가요? 그래도 말이 잘못되엇다고 할복은 안는말슴이오그려 애구참 사내놈 아니꼬아 녀자라고 그러케 업신녁이기 마러요 리유는 또 무스리유를 말하라고 하서요 말을해야 고지듯지 아니할터인대』

하는 순옥의 입설은 푸른빗이 돈다

『그러지말고 말을하시오 아까 한말은 다 철회(撤回)합니다』

하는 성원은선우슴을 친다

『그러면 그럿치 다시는 그러지마서요 당신이 그러시는대 나는 속상해서 죽것서요……』

『그런대 왕한이는 진정한 혁명가는 아니야요 그러고 순옥에게 대한말이 드러내노코는 아니하야도 순옥을 찬성하는 눈치가 보이고 엇더한 점에 잇서서는 순옥이와 내통이잇는것 갓습데다 이담부터는 주의하십시오』

정이 만히 잇데군요』

『무슨점이오』

『그가 순옥의 화비를 먹는것은 다 아는일이지마는 정신에 잇서서도 순옥을 찬성하것지오』

『그럴리가 잇나요 순옥의 도움을 밧는다고 그것으로 올을 찬성하는것이라고는 업는일이지오』

『그러기에 나도 분개를 지서 말을 하얏지오『그가 순옥의 화비를 먹는것은 다아는바이지마는 정신으로도 순옥을 찬성한다』고 하얏지오 그러면 화비먹는것 다르고 정신으로 찬성하는것 다르고 두가지로 난우어진것이 아니야요 그런대 화비를 먹는다고 찬성하는것으로 볼수업다는말이 무슨말슴이오 나는 아조

라이싱선石油會社 製罐部職工動搖
三個要求條件을提出코怠業
會社側態度가注目處

【元山】지난 이십구일 함경선(咸鏡線)문평(文坪)에 잇는『라이싱선석유회사』의 제관부(製罐部)직공 이십사명은 동회사당국에 대하야
一、임금을 인상하여줄것
二、위생시설을 충분이하여줄것
三、년중 몃차씩 옥외작업(屋外作業)을 식혀줄것등
삼개요구조건을 제출하고 사보타쥬를 개시하면서 동요되고잇서 일반은 그귀취를 주목하고잇다는데 이제 그경위를 알어보면 동회사에서는
一、개업당시 전긔직공들은 소년공으로서 일급 사십전에 채용되여 이래동제관부에서 작업하여왓는데 모다성년이 되여가정을 일우고 또는 숙연공이되엿슴에 불구하고 동회사 직공채용규정이 최하임금을 칠십전으로 함에 대하야 자긔들에게 현재 팔십전은 억울하니 상당할가량 인상하여달라는 것이며
二、동제관부에서는 염산(鹽酸)을 가지고 작업하기 때문에 염산의 연긔를 늘 호흡하고잇서서 폐장에 지극히 해로워 그동안 폐병에 걸려죽은사람도 잇스며 현재의 그들중에는 한 시설로서는 장차 병에 걸리지안흘것을 보장할수가 업스니 인도상 견지에서라도 하로속히 위생시설을 충분이하여달라는것이며 (현재 코병에 걸닌사람도 만타고함)
三、항상 옥내에서 염산내음새를 마터가며 일하기 때문에 몸이 연약하여짐으로 일년에 몃차씩 다른사람들과 교대하여 옥외에서 작업하게 하여 달라는것들 이라는데 지난달 이십오일경에 동직공들은 동회사당국에 비공식으로 이상의사정을 가추어 요구하엿스나 불응함으로 일제 결속하고 정식으로 요구하는 동시 만약 이요구조건을 불응하면 일제히 파업할것을선언하엿슴으로 이에 당황한 동회사당국에서는 그러면횡빈(橫濱)본사에 보고하여 승인을어더볼터이니 여전이 작업을 하여달라고하여 동직공들은 십일간의유예를 요구하고 현재작업중이나 사보타주를 계속하는중이며 금후 동회사당국의 태도여하로서 중대사태가 돌발하지안흘가하여 주목중이며 더욱이나 일반은 전반 원산제네스트사건의 지원이 동회사엿슴에 더욱 주목을 갓고 이문제의 추이를 주시중이라고한다

崔基郁氏의美擧
現金二百圓식을 五個團體에喜捨

【平壤】평양고등보통학교 교유 최긔욱(崔基郁)씨는 선친의 유지에 의하야 재단법인 평양고아원(平壤孤兒院)을위시하야 장무회(奬武會)고육원(孤育院)평고동창회(平高同窓會)갱생원(更生園)등다섯단체에 각긔 이백원을 희사하여 각단체관계자들을 감격케하엿다한다

江口禮拜堂 建築費義捐

【盈德】경북영덕군강구면강구항(江口面江口港)은 본군의관문일 뿐아니라 축항(築港)급동안공사(□□工事)등 시설하기다 지방 발전사업을 적극진행중인바 당지에잇는 긔독교인(基督敎人)주명우(朱明宇)여긔설(呂基卨)량씨는 신앙의긔갈에 허매이는 교인을수용할만한 예배당(禮拜堂)이 업슴을유감으로생각하고 인근각교회에 동정을구하든바 수백여원의 동정을어덧스며 울에 잇는 선교사옥호열(玉鎬烈)씨 오십원 씨 백원 권찬영(權燦永)씨 오십원의 의연까지 어덧스나 위선 긔지에 삼백원금액을주고 매수하게 되여 량씨는 선후책을 강구중 이든바 마침 안동현오번통오정목(安東縣五番通五丁目) 김성복(金□□)씨가 마침 당지에와다가 그정경을보고 도라가서 금□원의의연을하엿슴으로 일반은 씨의특지를 칭송중이라한다

大豆化學工場― 突然工事를延期
原因은特許權問題라고하나
會社側口實은,研究不足,

【興南】자본금 일천만원 으로 함남본궁(本宮)에 대두화학공장을 설치할계획으로 공사를진행중이든것은 세인이 다아는바어니와 근일에 돌연대두공장이 중지된다는 풍설이 항만에떠돌아 일반사회인으로 하야금 자못념려케하엿는데 그내용을 들은대로 소개하면 회사당국으로서는 대두화학에 대한 연구가 불충분하야 십분연구한후에 착수하라고 일개년간을 연긔하엿다하며 풍설에는 대두화학 공작에 대한 특허권이 남만주철도주식회사에잇서서 중지된다고 한다 그원인에 잇서서는 절대비밀에 부침으로 명확히알수는 업스나 일년간 연긔 하는것만은 사실이라한다

職工募集廣告도 募集取消揭示

【興南】흥남대두화학공장에사용 할직공을 제이회로 모집하라고광고하엿든 것도 취소한다는게시가 발표되엿고 이미일회로모집한직공은 조선질소회사가계에 배치되리라한다

複式敎授講習
全南敎育會主催

【靈光】일면일교제가 실시되고 또간이학교가 목하신설되야가는 중임으로 교원이 부족함을따라 각학교가 만히복식(複式)교수를 하여오는중 인데 전남교육회에서는 이에늣긴바 잇서 경성사범(京城師範)의 상전주오랑(上田周五郞)씨를 초빙하야 영광공립보통학교 강당에서 팔일부터 삼일까지 사흘동안 복식교수법강습회를 개최중인바 회원은 전남각학교에서 선발된 □□명을 참석케 하엿는데 그수는 □□명이라고한다

京城普校生이 仁川海서溺死
月尾島最初犧牲

【仁川】경성서 해수욕하다가 익사한학동=경성부(京城府)수창동(需昌洞)이 백사번지 심재홍(沈在洪)의 동생재완(在完)은인천부 외리(外里)사번지 그 백부심만섭(沈晩燮)씨댁에 와 다가중형들과가티지난일일 월미도 해수욕장에갓다가 맛참내오후 오시경실족익사되고말엇다 전긔재완은 일즉이 부모를 여이고 누님의 보호를바다 겨우 공부하는 기구한운명으로 학교의성적이 최우등일뿐아니라 우량아동의 표창까지 바든일이 잇서 일반은 가장 애석히여긴다한다

德源農組關係 兩君滿期出獄

【元山】덕원적색농민조합(德源赤色農民組合)사건의관계로서 함흥지방법원(咸興地方法院)에서일년반의 체형을받고 이래 영오에서 신음하던 박영하(朴永夏)김명희(金明熙)양군은 지난 이십칠일 함흥형무소(咸興刑務所)에서 만긔출옥하여 덕원향리로 돌아왓는데 모다 몸은 건강하엿스며 또한동사건의관계자 김달수(金達洙)는 팔월상순에 역시 만긔출옥하리라한다

五山購買組合定總

【定州】정주군 갈산면 익성동 오산구매조합(定州郡葛山面五山購買組合)에서는 제□회정기총회를 지난 □□일오후두시에 동조합 영업소내에서 조합장 박치조(朴治祚)씨의 사회하에 개회하고 전무리사 최성삼(崔聖三)씨의 결산보고와영업상황보고가 잇슨후 선거사항을 토의하엿다는데 당일선거된임원은 다음과 갓다
組合長 朴治祚 專務理事 崔聖三 理事 朴永承 金日煥 車泳鎬 車德龍 白仲旭 監事 李東洛 黃鐘洙

千佛山公普校 學年延長運動

【新興】서고천면 공립보통학교(西古川面公普校)의 개교로 일면일교제가 완성된 신흥군(新興郡)에는 이제 각면사년제학교의 학년연장운동이 잇슬것으로 일반이 보고잇든바 과연 수일전에 천불산공보교(千佛山公普校)의 학년연장요구차로 동교학무위원 리규신외수씨가 당국에 학년연장을 진정하엿다한다

大城、華陽兩面 水防團을組織

【淸道】거번 수재의 신산한경험을 지나고 금번여름의 홍수긔를당한 경북청도에서는 대성화양(大城、華陽)량면에 수방단(水防團)을 조직하야 홍수긔에 수란을 방지코저 신규계획이수립되여 이달안으로 긔필코 조직완성을 보게될것이라는바 수란방지의 주요임무이외도 면내에 유고할시에는 활동할것이라한다

水電工事完了로 失業勞働者沙汰
일터를이러버린數千失業群
갈곳업서路上에彷徨

【長津】요지음 장진강 수전공사(長津江水電工事)가 준공됨을따라 이제철도 청부조 원회사 들에서 할것업시 인원정리가 시작되엿스니 매일 수십명식 해고의날벼락을 맛고 선칼에 목이 떠러저 흣터지는 무리가 이로 헤일수업시 수천명인데 집일코 떠나가는 저수지구내거주민과 공사를 맛고모여드럿든 소상인의 이주민무리까지 합하면 장진을 남북으로 통한 이능도로에는 인산인파를 이루엇는데 그들은 갈곳을 찾지못하고 사수(泗水)갈전(葛田)하갈(下碣)등 거리마다 모여들어 방황치안흔 곳이업시 혼잡을이루고잇다한다

『버들』細工 講習生入舘式

【群山】긔보=군산부립직업장려관(群山府立職業獎勵館)에서『버들』세공도 개시한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동직업장려관에서는 지난 삼십일오후이시부터 동관에서 강습생 입관식을 거행하엿다한다

西朝鮮蹴球戰 開幕日또延期

【博川】팔월일일에 개최하려든 박천남흥동 보건사(博川南興洞保健舍)주최와 본보박천지국 후원의제이회 서조선 축구대회는 호우로인하야 오는팔일로 연긔하엿다고한다

大田火災民에게 各界同情이遝至
有志들이同情金모아 本報支局에寄託

【大田】긔보=지난 삼십일새벽에 대전에서 조선인 상가로 중심지대인 본정이정목시장(市場)에 불이 일어나서 대전지물상회(大田紙物商會)를 비롯하야 린접가옥 구호가전소되며 손해액이이만오천여원에 달하엿다 함은 긔보한바 이어니와 이상구호는 의외에 집과 재물을 일코 가두에 방황하고잇든 비절참절한 정경을 동정하야 그부근에서 미곡상을 경영하는 김영태(金榮澤)김용선(金容璇)류성득(柳成德)외수씨가 발긔하야 미곡상하는 사람들에게 현금오십팔원삼십팔전을 거두어서 본보대전지국에 의뢰하야 그중에미곡상사호에 십구원사십전식 분배하엿다한다
이외에 대전용진단(大田勇進團)에서 삼십오원과 대전리발조합(大田理髮組合)에서 이십이원을 이재민에게 보내엿다한다

下碣署俄然活動 靑年數名을檢擧
水電水路第三竪坑工事場에서 某種重大事件에關聯?

【長津】지난 삼십일 함남장진군하갈서(下碣署)에서는 동군신남면도내리(新南面道內里)수전수로제삼수갱(水電水路第三竪坑)공사장에서 수명의 청년을 검거인치하고 계속하야 엄중한경계와 비상한활동을 보이고 잇는데 그사건내용은 알수업스나모종중대사건에 관한검거는 안인가?하야 일반은 주시하고잇다고한다

下半部撤毁만으로 爲先紛糾一段落?
東德川堤防撤毁問題

【新興】긔보=동덕천좌안제방철거(東德川左岸堤防撤去)문제는 지난 삼십일 오후한시경에 좌안측으로부터 홍광일(洪光一)씨 읍민측으로부터 한면수(韓冕洙)씨외 삼명이 신흥군수의 알선으로 회견하고 장시간 회담한 결과 읍민측에서 양보하야 제방하반부(下半部)의 구비진 부분에서부터 철거할것을 요구하고 쌍방이 한가지로 제방 현장에 이르러 군토목계원의 립회와 동고천면장의 조정아래에 철회선(線)의 사정(査定)을 개시하엿스나 홍씨로부터 자긔단독으로는 응락할수업다하야 당일도 결말을 짓지 못하고 산회하엿는데 이리하야 읍내삼천주민의 주목중에서 수년래 분쟁을 거듭하고 잇든 동문제도 불일래 하반부철회로 단락을지을것으로 관측된다고한다

本報豐川支局主催 椒島視察團募集
五日午前九時半出發

【豐川】본보풍천지국에서는 례년과가티『까나리』와『고사리』의 명산지이고 해인(海人)의 한철의락원지인선경 초도시찰단을모집중인바 례년보다 시찰원의 편의를 목적하고 더욱 초도에숨어잇는 경치를 구비구비 차저볼 계획으로 서해항로의 명인인 평택길삼랑(平澤吉三郞)씨와의 교섭이끗나 팔월오일오전구시 삼십분에 진강포(鎭江浦)를출발하여 소사포 어업조합공유어장 개인어장 어업조합 서도등대 초도일주초도개척농원(蘇沙浦、椒島漁業組合共有漁場、同組合、西島燈臺、椒島一週、椒島開拓農園)등과 이밧게 여러곳을 시찰하리라는데 가입을 환영하는인사는 팔월삼일정오까지 본보풍천지국에 신입하되 가입금은 삼원이라한다

簡易校經費로 三百圓을喜捨

【洪城】충남홍성군 귀항면공리(龜項面公里)에사는 최용섭(崔用燮)씨는 이번홍군서부면 양곡리(同西部面陽谷里) 간이학교의경비곤난으로 경영상지장이 잇게되다는 소문을듯고 자진하야 일금삼백원의 거액을희사하엿슴으로 당지학교학생들과 학부형들의 감격히 여김은 물론 일반인사들까지 층찬이자자하다고한다

物換星移三百餘年
죽지안흔忠魂義魄
陰六月廿八日矗石樓서擧行된
三壯士와論介祭典

【晋州】사람들이 진주를 말하게되면 반다시 촉석루(矗石樓)를 말하게되고 촉석루를 말함에따라 삼장사(三壯士)와 론개(論介)를 말하게되는다。

澳澳江花明似錦、重重樹樹翠如流

는 촉석루의 풍경을 읊은시요

矗石樓中三壯士 一杯笑指長江水 長江之水滔滔去 波不渴兮魂不死

는 삼장사의 당시 충절을 부르는 시가이다。

◇……◇

계사년(癸巳年) 륙월 이십팔일! 이날은 지금 삼백사십사년전 임진란(壬辰亂)에 진양성(晋陽城)이 함락됨을 따라 당시수성(守城)하든 김천일(金千鎰)、최경회(崔慶會)、황진(黃進)의 삼장사가 남강에 투신하야 순절(殉節)하든날이오 의일인 이십구일은 의기론개(義妓論介)가 역시 남강의 의암(義岩)우에서 투신하든날이다。

이가타 살신보국한 가인을 천추에 긔념하기 위하야 진주에서는 춘추향사로 지난 오늘날까지 년중행사로매년 음력륙월이십팔 구량일에는 장사와 가인의 제전(祭奠)을 진주시민이 거행하여오는바 금년에도 지난 이십팔일 촉석루에서 의기는 진양녀자계(晋陽女子契)의 의손으로 오후세시에 창렬사(彰烈祠)관계제씨로 당야열시에 각각 성대히 거행하엿는데 이제 그 어구에의 제향을 들러섯다。

기제전의 모든 절차를 간단히 소개코저한다

◇……◇

이날 열두시가 넘어 촉석루에는 수천시민의 남녀가 모혀들고 로기 퇴기들(老妓退妓)은 예기권번의 백여홍군(紅裙)이 총출하엿는데 맑은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유량한 고악(古樂)의 청아한소리는 끈끈히 흐르는 장강의 물소리와 함께 충혼의백(忠魂義魄)을 위로하는듯 강건너 대수풀에 우지지는 새소리도 이날을 당하여는 뜻잇는우름인듯……

오후 세시가 조금넘어 제관들과 기생면이 일자로서의 기사당에 삼배 여덟래 안치되어잇는 논개의위패를 공손이모시어노앗다。

제물을 갓추어 차린 제단압헤는 제관들이 느러서고 그다음 좌우로 기생일동이 차례로 둘러섯다。초헌관이 술한잔을울리고 사배를마치면 풍류소리를 마추어 시조일창을읊는다。

맑고맑은 남강수야 임진사를 네아느냐 충신과 의사들이 몃몃이나 빠젓느냐 그중에 녀주장부는 의부인인가 하노라

아헌관이 잔을 드리면

촉석루 밝은달은 논랑자(論娘子)의 넉시로다 의국한 일편단심 천만년 비치우니 아마도 천주의절은 이뿐인가 하노라

종헌관이 술을 울리면

우주강산 넓은곳에 허다한 바위(岩)로다 풍마우세 년구하면 어느돌(石)이 안변할가 그중에 일편 의암만 천고불변 하도다。

이리하야 각기 정성대로 번갈아가면서 잔을드리고 다음 시(詩)의 절차를마치고 춤과 검무(劍舞)한바탕을추고 또한 십여명의 기생들이 차례로 서서 노래를부르니 위패는 사당으로 모시고 음복을한연후에 기생일동이 소리를 합하여 을류해에마추어 의암곡(義岩曲)을 집당이 부르는다。

◇……◇

이리하야 여섯시가 넘어 제전이 끗난후 제기등이 제물을갓추차려 상에 밧드러가지고 의암으로 나려가서 논개혼백을세번 부른후 제물을 강중으로향하야 던젓다。

아!과연 논개의 향혼이 잇서 이를알는지? 서산락조에 강물의 파문(波紋)만 새롭고 다못 무심한 어별(魚鼈)들이 모아들뿐……

讀者慰安音樂
豐川初有大盛況

【豐川】본보풍천지국에서는 본사삼대경사를 긔념코저 본보애독자급시민 위안음악대회를 조선내 중등학교 현상음악대회에서 일등상을 획득한 평북선천 신성중학교(信聖中學校)음악부원이 황해도를 순회함을 긔회로 본보 풍천지국에서 초대하여 예정과 가티 지난이십칠일밤팔시에 풍천공립보통학교 강당에서 지국장로진세씨의 개회사와 신성학교조인섭선생의 인사가 끗난후 풍천으로서 처음되는 청중 천여명은 장내외에 구름가티 모히어 천지가진동하는듯한 박수로써 대성황리에 음악이시작되자 열광적으로 재청을요구하는 고함과 박수는 끗칠새가 업시 풍천으로서이래 처음되는성황리에 폐회하엿다

碧潼郡西門外의 數個村全滅狀態

【碧潼】평북벽동군하의 서문외(西門外)의 제부락에는 지난삼십일 오전한시경에 사나운 물결이 래습함으로 일반은 갈바를 찻지못하고 헤매이며 울고 부르짓는소리는 실로 목불인견의 참사를 일우엇다 남녀로유 백여의 리재민은 쏘다지는폭우를 마저가며 로숙하는 그들을 눈물업시는 보지못할참경이엿다

疑問의溺死屍漂着

【寧邊】지난 십칠일 오전령시경에 녕원군 녕원면 신리(寧邊郡寧邊面新里)압 대동강상류에

그女子의一生 (173)
방랑편
春園 作
夕影 畵

그러나 종래어머니가 돌아가면 금봉의 마음은 여전히 괴로웟다。더구나 근래에 광진의 발이 점점 떠저서 오지안는날이 만코 혹시 오더라도 전과 가티 금봉을 위해주는것이 하한것 가탓다。광진편으로 보면 요새에는 금봉을 보는것이 고통이엇다。그 귀신가튼 모양、밤낫 짜그리고 불쾌한 소리만 하고 재미잇는 일은 하나도 업는 금봉이 집에를 오고십흘리가 업섯다。더구나 금봉이가 광진의 안해 잉태한것을 샘내는 것을 볼 때에는 퍽 불쾌하엿다。광진에게 잇서서는 아모리 본처에게 정이 업다 하더라도 본처의 몸에서 아들이 나는것만은 조흔 일이엇다。더구나 십여년을 안 돌아보아도 도모지 불쾌한 빗을 보이지 아니하고 정성것 옷을 지어주고、혹시 대하면 언제나 웃는낫으로 대하고 금봉이를 첨으로 엇어서 잉태하엿다는 말을 듯고도、

『그것이 아들이나 되엇스면 조켓서요』

하고 진정으로 아들 낫키를 바라는 표정을 하는것을 볼 때에는 광진은 그 안해가 성인갓고 천사가티 생각혀서 도로혀 동정이 소사올랏다。혹시 옷 한 가지라도 끈허다 주면 그 것 버하고 고마워함이 만흔 아니하면서도 눈물겨워햇다。

『웨 한번도 친정에를 아니 가오?』

하면 광진의 안해는、

『남편을 잘 못 밧들어서 소박을 밧는 년이 무슨 면목으로 친정에를 가요?』

하고 눈물흘렷다。그리고、

『이번에 하나님과 조상님 은혜로 아들이나 나흐면 친정에도 가고 일가대에도 가지오』

하엿다。광진은 안해의 이런말을 들을 때마다 금봉과 비겨 다。안해는 현부인이오 금봉은 음탕한창녀엿다。

『서방두고 딴서방 보는년』

하면 금봉은 더럽기 짝이업섯다。본래 정부의하나로 일시 작난으로 사고인것이지마는 그런 계집과 오래갓가히 하는것은 몸이 더러워지는것 가텃다

『그 속에서 자식이 나기로오 속할라고』

광진은 이런 생각도 하게되엇다。

『정선이가 제어미를 닮엇스면 어찌하나?』

이런 걱정도 하게되엇다。더구나 금봉이가 마사이 되어서 팔이 귀신가티 되고보니 광진의 마음이 끌리는것은 하나도 업섯다。

『미인은 미인이거든』

하고 광진은 예전 금봉을 생각하면 못견듸게 그립던 긔억을 일으켜본다。은행에서 사무를보다가도 금봉이 생각이 나면곳 뛰어나가 차저가고 십도록 그리던것을 생각한다。만년필로무심코『리금봉 리금봉』하고 금봉의 이름을 수업시 쓰다가급사의 눈에 뜨이고는 낫치 후군거리던 일을생각한다。

『인제 해산이나 하고 몸이추서면 또 그때아름다움이 돌아오겟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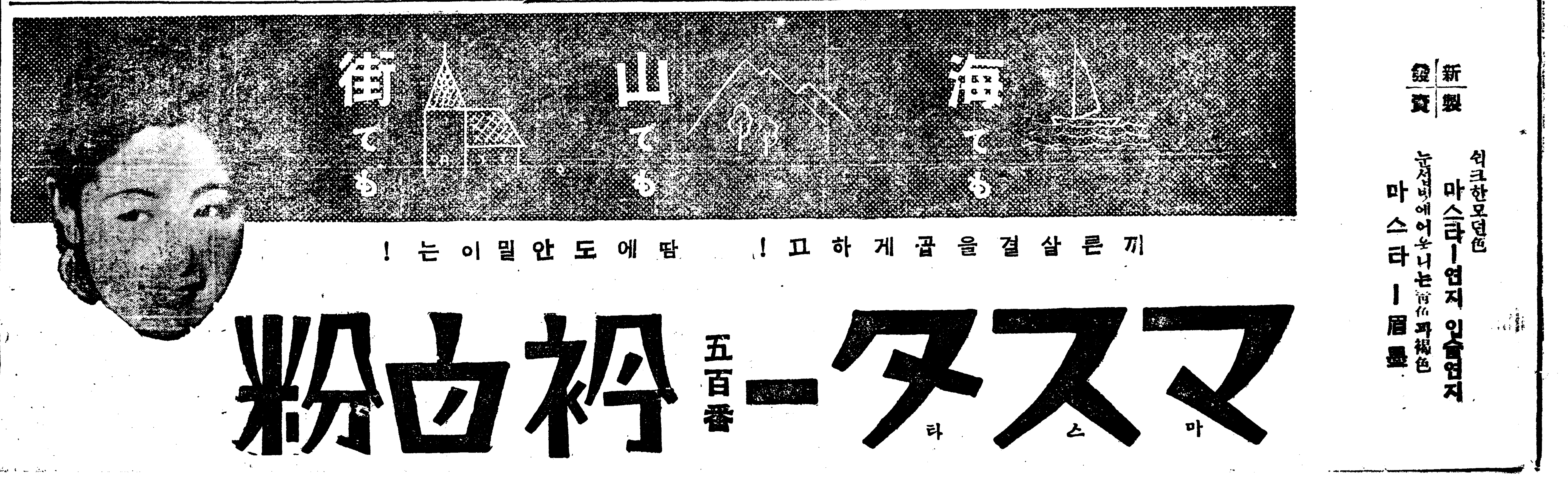
이러케 생각하면 금봉이가아까웟다。아직 그냥두고보다、실혀지거든 내버리면 고만이지、하고 마음을 노앗다。

사구라가 피기시작할때 금봉은 아이를 나호라고 입원하엿다 광진이가 입원을 시킨것이엇다。방도 트르실 조용하고넓고 침대에 누어서도 고개만 들면 뜰에 섯는 사구라나무가 보엿다。간호부 한 사람 그리고도 순이라는 계집아이 하나까지 집에서 밥먹고 날마다와 잇기로 하엿다。틈은 틈대로 부잣집 아씨가 할것은 다하엿다 병실 문에는 까만패에 흰 분으로『리금봉』이라고 써 달앗다。오래 세상에 숨엇던 리금봉의 이름은 이리하야 다시 세상의 눈에 띄우게되엇다。

입원한지 사흘이나 되어서야 금봉은 또 이십여시간의 진통을 겪고아들을 나아노앗다。남의 눈을 꺼리는 광진은 이튼날 아침에 일즉이 병원으로 찾아와서 어린애를 들여다보고는 간호부가

『아드님이 나겨서 그런 경사가 업습니다』

하는 인사도 듯는체만체하고 은행으로 가버렷다。금봉은 난산끗에 늬롱기롱하면서도 광진의 얼굴에 낫타나는 표정을 읽히 보기를 잇지아니하엿다。광진은 차림 인사는 다 차리면서도 것 버한다는것보다 도거정이다 늣하는 것 가탓다。



經濟解說 〃惡性인풀레〃 어면境遇에생기나

(②)……申泰翊

前回에서 말한바와 가티財界前途에對하야 세가지 意見이 對立되여잇고 딸어서 財界의動向은 바야흐로 岐路에 선것이 事實이다 그래서 將來[illegible]하야 赤字公債의增發로써 이景氣를保持케하여야 올흘것인가 또는 이러케되여도 惡性인풀레가 나타날念慮가 업슬것인가 그러치안코現在以上 赤字公債를 增發할境遇에는 果然 惡性인풀레를 招致케할念慮가 多分으로 잇는만큼 차라리 이때로 부터는 財政의健全化를 圖하는것이 良策으로 될것인가 그러나 오늘까지 繼續되여오는 인풀레政策이 急激히 떼풀레로 도라스게되면 景氣의反動이 激케되지안흘가 이처럼 財界前途如何가 매우 重大性을 띄이고잇는터이다

×

먼저 健全財政을 主張하는 사람들의 論據를 드러서 보자 即 昭和七年으로부터 시작된 赤字公債의增發은 今年度까지 이르럿스나 그동안은 民間消化力의限度內에서 되엿든때문으로 何等의支障이 업섯다 그러나오늘에잇서 赤字公債에 對한民間消化力이 이미 그飽和點에 到達한것이 確然히 보이게되엿만큼 赤字公債의 增發을 繼續하기가 어렵게되엿다 만약 그 民間消化의 限度를 無視하고 赤字公債를 增發한다고 하면 그公債는 日銀의金庫속에만드러가게되고 딸어서日銀券發行高의 增加要 即通貨膨脹이 顯著케될것이다 그러면 이結果는 어떠케될가 오늘까지 政府의赤字公債가 增發되는 一面에는 日銀으로부터 公債賣却 即民間消化로써政府에서 散布한 돈은 다시日銀으로 도라드러가게 되야金融이 圓滑케되는同時에 通貨가 한便에 蓄積되는 弊害를막어왓다 이것이 所謂 日銀의 金融操作 即오픈·마켓·오페레숀 이란것인데 이것이民間의公債消化力을 無限定擴張에는 그技能을 喪失케될念慮가 생긴다

×

이와가티 赤字公債增發과 不相伴的으로 日銀의 金融操作이 不能케되면 이때에는 通貨膨脹으로因한 惡性인풀레의 結果가 나타나게 될것을 豫想할수가 잇다 그럼으로 오늘까지 繼續되는 赤字公債政策대로 明年度 豫算을 編成한다는것은 危險性이 相當한으로 될수잇는 限度에서 赤字公債의 減發 또는 增發로써 財政政策을 健全한 基礎上에 잇도록 하여야만될 時期에 이르럿다고한다 이에對하야 이미 高橋藏相도 赤字公債의增發에 잇서 民間消化力이 그限度에 到達된것을 認識하고 一面으로 健全的增稅의 境遇에는 惡性인풀레를 보게될것을 念慮하야 昨年度豫算編成에는 赤字公債減發方針을 表明한것이다 그러나 아직增稅에 對하야는 그態度가 不鮮明한바 이것은 高井前藏相의 實例가 잇는것과가티 오늘에잇서 財政을 健全化함에는 增稅가 不可避의 일이지만 輕輕히 增稅에 손을 대엿다가 財界에 急激한 衝動을 줄것을 念慮하는때문이다 이것을 다시말하면 正面으로 財政의健全化를 實現함에는 惡性떼풀레現象이 나타날가 念慮하야 結局 中庸性을 띄인 漸進的 赤字公債減發方針에 [illegible]것이로 생각한다

×

다음에는 以上의 健全財政化論과 正反對의 積極論을 주장하는 公債增發論을 드러보자 오늘 民間消化力限度를 말하는所謂 [illegible]에 잇서 赤字公債에 對하야 은 오즉 이增發로써 [illegible] 인풀레의結果가 생긴다하는때문이다 그러나 惡性인풀레라것은 그처럼 單純한것이 아니다 이것은 [illegible] 다 이것은 무슨말이냐하면 惡性인풀레라것은 [illegible] 또는 生産力을 破壞하는 大消費 即 戰爭이나 天災地變과 가튼 不可抗力의 事態 即 經濟外的原因으로해서 생기는 現象이다 그럼으로 다만 金融現象 即 漠然한 大消費는 資本主義經濟에 잇서서는 絶對로 생길수 업다는것이다 (續)

小農과消費者層의 窮境을全然不顧

當局態度는實情에沒理解

政府米拂下를熱望

端境期를 압두고 騰貴 또騰貴를 거듭하는 米價는 近來稀有의 高價를示하야 五斗入一叺의 市內 小賣價는 十五圓까지 일으고 잇다 一部쌀딸 餘力을 가진 富農이나 倉庫에 山積한 大商人이 快哉를불으는 反面에 敎만흔米消費者와 가을에 딸엇다가 다시사먹는小農들은 쌀갑시듬뿍으로해서 비싸진米、粟을사먹는 窮民層의 아우성 소리가 날과 지는것이 最近의 現狀이다 이와에 米生産者와 米消費者를 眼目에 두어 所謂米穀 需給을 調節하며 米價를 調和하는 當局이 이에對하야 無關心한 態度를 示하는 傾向이잇슴은 올치못하다함바이다。當局은 一般이 政府米拂下를 熱望하고 잇슴에도 不拘하고 時期尙早를 論하며 最近 朝鮮米 五萬石의 日本內地 直送에 對하야 某當局者는 말하되 「窮民이 草根木皮로 延命한다는말은 非事實이다 어떠한것이든지 먹고이겟지오」等의 諸現狀을理解못하는 態度를 取함은 遺憾스러운일이다 速히 政府米의 多量拂下가 必要하지안을가한다。

今年朝鮮米作打診

압흐로의氣候惡化만업스면 ◇……平年作以上無慮

今年 米作豫想에對하야 總督府農林局美代技師는 다음과가티 말한다

今年은 比較的 降雨가 적어서 湖南線一帶 特히 全南北은 旱魃로 因하야 二、三萬町步의 移秧未了地가 생겨現在 代作中이다 朝鮮全體를통할때는 七月十日現在 移秧終了面積은 百五十六萬千百十三町六反步로 今年移秧豫想面積의 九割二分七厘가 移秧이 終了되고 그뒤 심어노흔것은 成育이 順調로 되여감으로 今後의氣候에큰變動이 업스면 今年은 平年作을 [illegible]리라고豫想된다

加奈陀의 再報復稅

五日부터實施

【電通오타와二日發】加奈陀政府가 日本의 通商擁護法發動에 對한 日本品에 對한 從價三十三%、二分一의 附加稅는 日本側이 通商擁護法發動을 撤回치안는限 斷然 五日부터 實施키로되엇는데 但 國內輸入業者의 要望에 依하야 이미 契約濟의 輸入商品에 對하야서는 特히 右附加稅의 賦課를 除外하리라한다

中國은 用銀國

財政部가聲明

【電通上海三日發】國民政府財政部는 目下倫敦金融界에 傳하는 中國의 協助貨幣鑄造에關한 인플레說을 非公式으로 다음과가티否定하엿다

倫敦에 傳하는 國民政府의 協助貨幣鑄造에 關한見解는 誤謬이다 이것은 케메라博士의 草案을 가튼것에 不過하다 財政部는 幣制研究委員會를 設置하고 [illegible]

東阿의遠征費로 『크레듸트』設定?

伊政府奔走나成功疑問

【電通巴里二日發】當地金融側의 觀察한바에 依하면 東阿의 遠征에 애쓰는 伊政府는 裏面으로는 所要軍備의 調達에 困難하야 歐洲諸國에 크레듸트設定의 目的으로 最近奔走中이라한다 即東阿의 遠征에 要할軍費는 一個月 一億三千「리라」의 巨額에 達하는데 伊政府는 此等의 調達에 괴로워 內面的으로 巴里金融市場에 秋波를보내나 佛은 財政緊縮政策 勵行의 結果 政府는 對伊 借款을許可치안키때문에 伊太利政府의 奔走도 現地로는 不成功에 終할模樣이다 伊太利政府側의 否定함에 不拘코 伊當局은 英國에서의 貸償債의手段을 考究中인듯하야 仲介人側의 報告에 依한 最近 伊太利 勘定에 依한 『스타-링』買가不少한 것에 達하얏다 한다

蘭銀利下

六分을五分으로

【電通암스텔담一日發】和蘭銀行은 一日公定割引步合을 一分내려서 五分으로 改訂發表하엿는데 이것은끈임업는 金의危機에 基하야 最近數次의 連續的大幅引上이든것이 처음利下로되엿것이다

預金貸出續減少

證券所有比前年激減 夏枯期의京城組銀

京城組合銀行 七月末現在는 預金 一億三千百 九十八萬 五千圓 貸出 一億三千七百十七萬一千圓으로七月十五日現在에 比하야預金七十九萬圓 貸出五十萬 三千九百 二十六萬八千圓으로 依然增加되엇다 그리고 有價證券所有高는 一億九千百 九十萬九千圓으로 月央보다 十四萬七千圓減、前年同期보다 三千三百三十一萬三千圓의 激減을 示하얏다

米日爲替少强

【大阪二日發聯合】二日의 米日爲替는 前日에 比하면 實買二十九弗二十五仙으로 一仙低

▲東京爲替(三日)
對米 實買 二十九弗十六分三
對英 實買 一志二片八分一

▲大阪爲替(三日)
對米 實買 二十九弗六分三
對英 實買 一志二片十六分三

今日財界(三日)

◆米 (單位圓)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正租(仁川)賣 [illegible]
正租(仁川)改良 [illegible]
◆市中金銀價 一斤價 在來
金 十一圓五十八錢 十一圓五十二錢
銀 [illegible]
◆綿 (單位圓)
日米棉 [illegible]
◆商品 (先限單位圓)
大阪綿絲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ゴム 現 [illegible]

經濟界消息

○朝鮮火災定期總會=朝鮮火災會社에서는 三日 午前十時 定期總會를 열고 (一)諸決算案承認件 (二)利益金處分案議決件 (三)取締役香椎源太郎氏外四名改選과 一名選任件(全部重任一名選任은 田中三郎氏) (四)監査役全員改選의件(重任) (五)取締役古城菅堂氏遺族吊慰金贈呈의件(重役一任) 其他를 可決하고 株主配當은 七分이라고

八月도保合?

新活動어슬듯

는 悲觀市다 하는바 果如何?

米國은 富의再分配를 行할모양으로 富豪課稅案을 議會에서 討議中이며 定期預金도 中年以下는 無利息인 程度의 低金利이니 아모것이나 사야 하겟다하는모양이오 NRA 無効判決로 動搖되엇든 財界가 對策을 꾸것스며 數年來 議會念法이 當例이잇스나 今年은 六月下旬閉會가 延期되어 지금까지 開會中이나 突飛한 案이 나올것가지 안어서 議會걱정이라는것이 업서젓다 그러하야 먼 將來는 何如間에 크리스마스 景氣까지는 好況이 約束된듯 함을뜻하야 生絲 其他 輸出入物價關係를 通하야·日本財界도 日米國의 好影響을 受할것이라하겟스나 八月은 夏休氣分이 濃厚하며 新活動이 不起하며 또 政治的으로 不安이 不去한터이니 큰 變動이업시 結局 保合이 거듭할것이라는 中庸消極論이잇다

株式擔保供用

認定키가困難 有力銀行側의觀測

【電通東京電話】「킬」擔保의 優良株供用에 就하야 最近 東株方面으로부터 그 復活要望意文書로서 水曜會의 幹事銀行에 通牒을 意向을 가지고잇슴에 對하야 有力銀行側에서는 大體如左한 觀測을 하고잇다

日銀의 利拂擔保에 供用을 認한 優良株를 「킬」擔保에 使用함을 有價證券擔保貸出의 意義를 沒却하는것으로 根本的으로 本來의 意義에 反한것이라하야 一昨年 水曜會에서 全部解禁된것이다 그 眞僞은 今日이라도 少少는 融通이업슴으로 公債의 一部 特殊社債를 除하고 株式의 擔保供用을 認함은 困難하야 專若 通牒을 受하야도 問題는 안될것이다。

商況(三日)

株式 閑散이나 少堅

前場少强 今前場은休日을압두고 氣乘薄 保合閑散으로 寄付後 鐘紡堅調에伴하야 結局少堅히 昨後引에比하야 東新三十錢高인 百三十六圓二十錢、日産五十錢高인 六十九圓 二十錢、大新 八十三圓四十錢에 各大引되고 朝取六十一圓五十錢、朝新二十五圓十錢、七十錢 帝人百七圓五十錢으로八圓六十錢 日鐵新三十六圓五十錢으로七圓三十錢 三菱銀新五十四圓三十錢 日石新 十二圓七十錢 滿鐵新 二十六圓二十錢이잇섯다

▲東新 [illegible]
▲日産 [illegible]
▲日魯 [illegible]

後場休會 後場은 土曜日임으로 例休인데 氣配大體不變이엇다

秋高?秋落?

强弱觀만對立

株價의現位置와 金利關係로 上價를豫想하고 銀行經營의 實情으로 金利引下를 不可避라하며 通貨膨脹도 難免이라고 强氣가 熱心으로主張함에反하야 弱氣는 通貨인플레의 期待解消、貿易發展의收縮、生産過剩에依한 利鞘低下、紡績惡化를 根幹으로한 事業界의 願落에 立脚하야 秋落市勢를 主張하고잇서서 懸殊한 强弱論이 對立되여잇는바 新甫高이면 秋市勢의分岐로 보고저하얏더니 그期待가 어그러지니까 이번에는 十月新甫를 더實込하면 도리어上放의動機가 形成되리라고 强氣는 보고잇는一面 弱氣는 大出超로도 못올느니 이市勢

紡績錘數

千萬突破? 今年末의豫想

【大阪電話聯合】紡績聯合會調査 =今年八月一日 現在加盟各社備置錘數는 九、八二二、三五六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八○二、六三八의 增加、今年一月以來五○六、九四一의 激增을 示하고 今年末에는 確實히 一千萬錘突破의 情勢이라한다

砂糖貿易의 輸出入增加

比前年七十萬피클

【東京電話聯合】今年上期 砂糖貿易은 輸出 百十八萬擔、輸入 百卅萬擔으로 輸出入共히 前年同期에 比하야 七十萬擔의增加를 示하얏는데 輸出增加의理由는 中國에서의 對日感情의好轉과 中國關稅引上을 豫想하고서의買氣旺盛이엇슴과 銀高等으로依한것이오 輸入의增加는 輸出旺盛에 伴한 자바糖의輸入增加에 依한것이다 中國의輸入이 前年同期에 比하야 七十萬擔以上의增加를 示한結果 八月頃까지는 荷過剩狀態로 될것임으로서 下期의 買氣는 上期에 比하야 幾分減退될것이라고 觀測된다고한다

朝鮮移出米와

◇……外米輸入數量

【東京電話聯合】拓務省發表에依하면 七月末 現在朝鮮의 移出米 外米輸入數量은 다음과 갓다(以下單位石、△減退)

▲移出米數量

		比前年同期增減
七月下旬	一九○、五九八	九○、七六一
七月中	五○○、八○二	一八三、○七八
前年十一月上旬後累計	六、三八一、○五一	三、三二一、五二一

▲外米輸入數量

七月下旬	二六	三三
七月中	四四	三六
前年十一月後累計	一○九	△一六九

操短再擴張으로 人絹賣價高唱

會社側態度强硬

【電通東京電話】人絹은 五月末五十四圓九十錢의 低價를 唱하든바 十一日로부터 實施된操短再擴張에依하야 昨今에는 五十七圓되고 往來케될 人絹會社는 十月以後의 最短率決定으로 大體九月物의 賣約에 힘쓰고 賣價는 六十圓以下는 안팔方針인데 一面 需要方面은 輸出內地에도 擴大되여 七月의 人絹織物輸出高는 一千十三萬五千平方碼로、前月보다 約一割이 減退하고 또

命令航路의成績

北朝鮮의殷盛을비롯해 貨物大激增으로活況

遞信局調査에依한 昭和九年度中의 總督府 命令航路는 近海航路十四線、沿岸航路、河川航路、近海寄港航路各二線、計二十線인데 그成績은 經濟界好況、朝鮮貿易躍進、北滿貨物進出、鮮內各地諸工業勃興에 依하야 各航路共히 良好하야 總體的成績을綜合하면

使用船數 七十八隻
使用船總噸數 十五萬千四百十六噸
航海延運數 百十六萬五千二百十
輸送貨物噸量 百二十九萬五千九百十六噸
輸送船客員數 十三萬千三百八十四名
運搬郵便個數 六萬二千六百九十三個

로 前年度에 比하야 使用船總延噸數이 겨우 六分의 增加를 보이엇슴에 不拘하고 輸送貨物噸量은 實로 一割三分九厘의激增을 示하고 그 數量이 十五萬八千八百二十七噸의 著增으로서 顯著客은川崎汽船의 [illegible]水下關線이新設된때문에 前年度에 比하야 三割一分八厘의 三萬二千七百四十三名 增加이다。右와如히 貨物의 著增은 北朝鮮과日本內地의 貿易躍進의 實狀을 如實히말하는것으로 特히 淸津 雄基積의 北漁物資가 兩港에 流出되엇고 興南의 硫安의 日本內地向等이 顯著한것이다。다음은 大連、朝鮮、裏日本、北海道間의 著增을 示하엿고 朝鮮米의北海道向、大連으로 부터의 豆粕輸出增加等이 原因된것이다。이外에 西朝鮮 表日本의 航路는 日本內地復航에잇서 若干增加이오 또對中航路도 排日政策의 緩和에 依하야 靑島 上海積이 모다 幾分取引 回復되는 모양을 示코잇다

小野田洋灰는 自由操短으로

朝鮮小野田세멘트會社에서는 目下日本內地에서 調整中인 日本세멘트聯合會의 形勢如何에 對하야 朝鮮、滿洲의 三小野田社는 不拘코 今後 同社의 商圈範圍인 南東滿洲及朝鮮의 需要關係如何에 依하야 自由操短키로되엇다한다

坑木需要增加

產金熱狂盛으로

產金熱의 勃興을 中心으로 炭坑其他 鑛業이 盛하야 鑛區增加의 結果 坑木의 需要가 激增하야 今年度는 百萬尺을突破할豫想이다 九年度의 需要는 七十二萬尺締 八年度는 三十一萬尺締로서 九年度의 飛躍的數字는 鑛山界의 全盛을말함한것이라한다

市中金賣價

夊二錢低落

京城市中金價는 一夊賣十一圓六十錢 買十一圓五十二錢으로 오래동안 固定不變이엇는데 倫敦金塊軟調로 三日에는 賣價가十一圓五十八錢으로 二錢의 低落이엇고 買價는 그대로 이엇다

市場六感

株

低價를 突込한것의 躊躇는 期하는모양이나 秋高를 目標로 積極的으로 買進치못하는곳에 市勢의伸力遲鈍、無力을 形成▲强氣는 東新百四十三圓이 가시것이오 弱氣는 百三十圓割을 가시것도 永續性이 업시 보는모양으로 그 主張하는모양▲이가티 局限된 價幅을期하니 큰幅의 變動이 잇슬수 잇나?▲東新은 적어도 三、四十圓幅을 上下間 보아야 그 半이나 三分一의 變動이 잇는터인데 이래가지고도 말로만 큰소리 한대자 무슨 所用?▲아모리 夏枯期라 하드래도 東京市場의 閑散은 三十年來 初有의 일이라고 이런 新記錄은 자미업소

米

大下朝發會와 共히 人氣는 軟弱하엿스나 低落의度는 不過幾十丁으로 今朝부터 買氣又復擡頭▲此가 一時的反動? 正米實勢의 原則的昂騰? 硬軟兩派의 主張은 各自의 一條가잇다▲軟派는 日今日의 現象으로보아서 豊作을 豫期할수잇고 따아서 農家의 實情米가 出來할것을 可期▲農家의 持米가 出來하는때는 渡米의 蒐集도 無難하리라고 主唱▲此에對하야 硬派는 日압흐로 天災가 重疊한 此際에 豊作을斷言하는것은 時期尙早의 推測일뿐 아니라 問題의 渡米不足은現實이 證明한다고 또한主唱▲果然渡米의調達이 如意치못하는때는 期近의 前途는 又一層頑强하야 近年에 보지못하든 例外의 高價를 示할지도 亦未知▲그런데 朝鮮에서 保管하든 政府米를 朝鮮에서 拂下하지아니하고 日本內地로 移出하려고 政府는 決定▲此에 對하야 朝鮮穀協은 反對를 開始 그決果如何

期米 保合裡에 頑强

前場反强 昨後場 阪地二十九圓四十七錢止와 共히 二十七圓五十錢에 場을 止한 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二十九圓四十五錢인 二丁反落을 攝하고도 二十七圓五十錢인 昨止同樣으로 場을始한後 阪地三節五十五錢으로 四十九錢까지 小弛하엿다가 五十二錢에 止場함을 伴하야 六十六錢으로 五十三錢까지 下押하엿다가 六十錢에 場을 止하엿다

後場强保 後場은 二十七圓六十六錢에 六丁高로 始場後 二節六十九錢으로 四節六十六錢에 伸悩이고 別欄가티 止場하엿다

期近의買妙味

現實이證明?

十限이 發會되자 實氣一時旺盛하야 一場饒舌을 徒出한듯하여스나 其實은 百三、四十丁下落의 中位低落을 示하엿슴에 不過하엿고 其後多少反落을 採續하엿스나下中限은 겨우二十餘丁 低落을 告하엿을뿐으로 今朝依然反騰하야 客月米의 高價를 依復함에 至하엿다 果然當中은 稻作의 豊凶如何보다도 正米의 現實事情을 如何이 말하는것이니 限보다도 期近은 買妙味가 多할것이다 正米의 事情을 綜合하여보면 日本內地及 朝鮮을不問하고 供給不足을 告하기까지에 至하지는안코나 그러나 來米穀年度의 持越이 例年보다 엄마클 減少될것을 豫期할수 잇스며 渡米氣勢에 잇서서는 客月當限을 受渡하는데에 軟派의 持米가 거의 出殺하여슴으로 今後는 又一層困難을 免치못할것이 라으로 押目買의 方針이 得策일 모양이다

東京國債市況

【電通東京電話】休日을 압두고 內國債及佛貨債는 氣乘薄保合이나 米貨債는 大阪高로 五、七十錢高이엇다

▲甲五分利 一○四二○ ▲一回四分利 不申 ▲二回四分利 不申 ▲佛貨四分利 一八六九五

實物前場取引

賣買高二百四十枚

	買方	賣方	取組高
日産	三九	五二	五四○二○
東新	三八	五三	七四三一○
大新	三四	五六	七七三四○

▲現物約定高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問題의保管米

移出? 拂下?

朝鮮內의 政府保管인 朝鮮米는 四十三萬餘石으로 就中五萬石은 日本內地로 移出하려고 農林省은 準備中이라한다 去七月末日까지의 日本內地移出이 八百萬石突破로 昨年同期보다 四五十萬石이나 增加이 되어 朝鮮의 在米는 日本內地보다도 又一層品貴를 告하는데다가 朝鮮에서의 保管米를 朝鮮에서 拂下하지안코 移出하려함은 政治的으로도 矛盾이거니와食糧問題로 보더라도 根本的으로 朝鮮에서 拂下하는것이 妥當하다하야 朝鮮穀物은 移出防止의 陳情을하는中이다 果然此問題가 如何한 結果를招來할지를 으나 大體政府의方針이 旣定되어잇는만큼 五萬石移出만은 確實하고 至지도 未知일뿐으로 此影響은 前途米價에 波及될모양이다 政府의 態度果如何?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一
電話長 九一六 六九三 二六五

各地正米

京城不變 古米의 遊移入米가 次次 取引되는故로 氣配는 不變이인 丸仁三等二十九圓七十錢 四等二十九圓五十錢 一等白米三十一圓八十錢

仁川同調 採算不合으로 日本內地賣行不振이오 僅히 必需程度의 買堅으로 全혀閑散狀態인 丸仁三等二十九圓七十錢 四等二十九圓五十錢 一等白米三十一圓三十錢

釜山下放 市場出廻二千叺、淸算의 波瀾含인에 不拘하고 移出取引皆無에다가 糯米의 潤澤으로 一般이 買氣가 不乘이오 氣配二十錢續落의 不勢인 角フ三等三十圓丁 四等二十九圓六十錢 一等白米三十二圓六十六錢

大邱軟調 當地 淸算期近의 傍觀的態度로 取引閑散을 呈하야 氣配更히 十錢低押인 角フ三等二十九圓五十錢 四等二十九圓二十錢 一等白米三十二圓十五錢

群山小高 廻着一輛 好調 順氣로 產地의買氣가 動키始하나 地場의 買氣가乏하야 僅히小口의 必需取引이 散見될뿐인 氣配五錢高인 菱フ三等廿九圓七十錢 四等廿九圓五十五錢 一等白米卅三圓廿錢

木浦閑散 產地品薄深刻으로 出廻杜絶이오 市中在庫拂底와 相俟하야 場面은 賣物皆無로 全혀休商狀態인 丸ホ多階三等卅圓廿錢 四等廿九圓七十錢 一等白米卅三圓廿錢

南浦同調 休日을 압두고 依然取引이 적고 閑況商狀으로 推移된 丸ナ龜甲三等二十九圓八十錢 四等二十九圓六十錢 一等白米三十二圓十錢

堂島前場賣買

【大阪電】▲買方 東京側、中東側、北國側、地場 ▲賣方 神戶側、地場株式側、朝鮮側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買方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金融 三日

◆海外經濟◆ 二日 [illegible]
◆日本銀行券◆ 二日 [illegible]
◆鮮銀行券◆ 二日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賣入價◆ [illegible]

米穀 三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 三日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京城綿布◆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지카묘期賣◆ 二日 [illegible]
◆豆油冲價◆ [illegible]
◆豆粕冲價◆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朝米 三日

◆朝取期米◆ 前場 後場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商品 三日

◆大阪綿絲◆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絲◆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

株式 三日

◆朝取短期◆ [illegible]
◆實定代引日步◆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短期氣配◆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期米

◆東京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